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악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에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빌리24 동관19층



역사의 무게

손봉호 (대표주관)

어떤 이단의 미혹에 깊이 빠진 젊은이가 자기들 교주의 강연회에 나를 초청했다. 어이가 없어서 심히 꾸짖었다.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20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 교주보다 몇백 배 더 총명하고 더 신실한 수많은 학자들과 경건한 지도자들이 그기나긴 세월동안 너희들 교주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결의하고, 개정해서 형성해 놓은 결정체(結晶體)야. 어디 무식한 돌팔이가 하나 갑자기 나타나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산에 감히 도전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거리로 사람들을 속이려 해!”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 있는 종교이므로 역사는 주요하지 않은 것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시간의 흐름이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돌팔이가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계시 자체가 하늘에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역사적 상황을 이용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구약성경 상당부분이 역사 기록이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다. 불경, 코란을 비롯해서 어느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성경만큼 역사적 기록을 많이 포함한 것은 없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고 모든 종교들 가운데 역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를 중요시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 광야의 시련, 아브라함 등 조상들과의 언약, 이스라엘의 타락 등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선민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기독교도는 역사를 떠나서 정체성을 논할 수 없다. 물론 정경이 완성된 이후의 역사가 성경이 기록한 역사와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있다고 가르치므로 우리는 역사적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닐지라도 올바르게 이해한 역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된다. 신학은 자연의 계시를 인정한다. 물론 성경의 계시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해한 자연현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역사 자체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지만 성경의 조명을 받은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네덜란드의 조직신학 교수 벨코프(H. Berkhoff)는 5세기경에 형성된 지금 형식의 사도신경에 그 시대의 교회에서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주장들과 사조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 시대에는 이미 미사가 예배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으며, 도덕적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도덕주의(moralism)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오직 정경, 특히 바울의 가르침이 순수하게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기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의 모든 교파가 다 인정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고백이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 반영할 뿐 시대의 잘못된 생각과 제도를 배제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2세기부터 5세기까지 무려 300년이란 긴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와 공회의 토론을 거쳐 형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정경을 대체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경의 권위 아래 남아 있는 것도 인간적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벨코프는 지적한다.

이렇게 형성된 기독교의 정통성은 권위를 갖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복된 도전들을 굳건히 견뎌냈기 때문에 역사의 무게는 더 커졌다. 그 역사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결코 개혁되어서는 안 되는가? 물론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란 표현은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유래했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프랑스 개혁교회가 모토로 사용했다 한다. 개신교회의 생명은 끊임없는 개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수와 개혁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기독교의 개혁은 과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고치는 것이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마치 자연현상도 계시가 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할 때만 권위가 있듯, 역사도 오직 성경에 의하여 올바르게 조명될 때만 진정한 무게를 가질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 모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반영된 것만이 진정한 권위를 가진다. 사도신경도 역사적 산물이고 십자군 전쟁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성경의 잣대로 재어보면 하나는 옳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역사는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역사를 비판적으로 돌아봄으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인간의 약점을 알아 대비할 수 있다. 과거를 바로 보아야 미래를 바로 살 수 있다. 독일이 존경을 받고 일본이 비판을 받는 것은 역사를 보는 능력과 태도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Contents

WORLDVIEW · NOVEMBER · 2013



WORLDVIEW

2013년 11월호 WORLDVIEW 통권 161호



표지인물
닉 랜팅가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06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넓게 세상 안에서 파고들기 _닉 랜팅가 (인터뷰어 : 최용준)

SPECIAL

- 14 종교개혁, 역사가 아니라 현재이다 _김중락
- 18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역사에 대한 생각 _권태경
- 22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개혁 _이상규

COLUMN

- 02 대표주간 역사의 무게 _손봉호
- 32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에게 묻다! _신국원
- 38 세바주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 _민수진
- 46 특집 분단을 넘어서 _송영대
- 51 기독교세계관 좌담 기독교세계관이 말하는 개혁이 뭔데! _김기현VS최태연

CULTURE

55 유머 _손봉호

BOOK REVIEW

- 28 기획도서 소개 터닝 포인트 _김수홍
- 42 서평 비판의 기술 _이경직

NEWS

54 사무국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실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 대표주간 손봉호
- 발행인 김승욱
- 편집인 신호영
- 편집위원 김정호, 김지원, 권태경,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황의서
- 자문위원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 교정/교열 김선경
- 번역 최희정, 사진 신호영
- 디자인 황정희, 강새날
-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 인쇄 안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되는 방법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넓게 세상 안에서 파고들기 _ 닉 랜팅가

① 인터뷰어 최용준 (한동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
번역 최희정 (자원번역봉사)

한동대에서 교환교수로 섬기고 있는 닉 랜팅가(Nick Lantinga)를 동역회 실행위원인 최용준 교수(한동대)가 만났다.



Question 최용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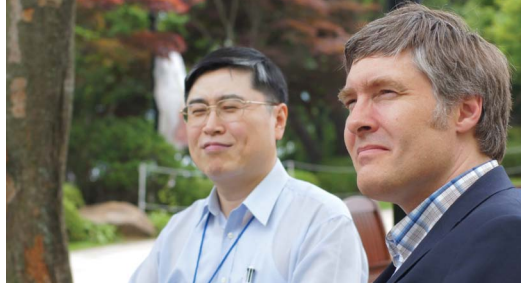
Answer 닉 랜팅가 저는 네덜란드에서 미국 중서부 지방으로 이주해온 이민 3세대로, 랜팅가 레이와 랜팅가 베스의 장남입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자랐지만, 이후 개혁적 전통이 강한 지방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 교회,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이후 저의 전문 분야를 키워 나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빈대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은 뒤, 시카고의 한 카톨릭 대학원에 입학해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이 기간에 매우 다양한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저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 분야에서 일하다가 2002년 국제기독교고등교육협의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이하 IAPCHE)에서 국제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Question 최용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고등교육에 흥미를 가지면서 국제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Answer 닉 랜팅가 맞습니다. IAPCHE는 1975년에 전 세계의 개혁신앙 교수들을 위한 학문적 공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역할은 신카이퍼주의자들(neo-Kuyperians)을 위한 소수집단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지요. 2002년 여름, 이 단체와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카이퍼의 통찰력이 맞다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앙적 전통과 문화들 또한 설득력이 강하기에 오히려 국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9년간 전 세계를 돌면서 이 생각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중 한국은 IAPCHE를 홍보하기 위해 방문한 첫 번째 나라로, 백석, 총신, 한동, 고신대를 포함해 여러 대학들을 방문했습니다.

Question 최용준 IAPCHE 컨퍼런스의 핵심이 궁금합니다.

Answer 님 랜팅가 IAPCHE는 설립 이래 3년마다 주요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습니다. 2002년경 IAPCHE 회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역별 군소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군소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적으로 보다 긴급한 문제들과 이슈를 다루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국제이든, 지역별이든 관계없이 모든 IAPCHE 컨퍼런스들은 기독교적 관점의 학문과 고등교육 교수법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uestion 최용준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무엇인지, 기독교 고등교육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님 랜팅가 먼저 우리는 세속화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오래된 개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버 마르쿠스(Rober Markus)에 의하면 라틴어 “Saeculum”은 성 어거스틴에 의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변화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을 “saeculum”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서 “secular”(세속적인, 세상적인)라는 영어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속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좋은 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창조세계의 피조물들을 명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피조물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사야 28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함을 통해 타작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19세기 술라이어마허의 가르침 이후, 세속화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 신학자는 지식인층의 기독교 탄압에 맞서, 인간의 내면 깊은 곳, 감정의 영역에 종교를 “가둠으로” 기독교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영지주의의 이원

론적 경향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반은 파우스트적 거래(악마와의 거래)에, 나머지 절반은 그리스도와와의 내면적 경험에 집중하였습니다. 몇몇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내면적 경험을 오히려 믿음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요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신학적 자유주의를 수용하여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보는 대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모두 교회와 기독교 고등교육에 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상 일들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복음주의자들이나 내면에 진지한 신념이 없는 지식인들, 이들이 바로 기독교 고등교육을 세속화시킨 주범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 세상의 좋은 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Question 최용준 현 시대 세속화의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Answer 님 랜팅가 최근 저는 기독교 내에서 새로운 활력, 강한 희망의 기운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기독교대학 성장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독교 고등교육은 현재 전례 없는 제3의 거대한 성장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관의 설립은 우리가 술라이어마허의 이원주의를 몰아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자유주의보다는 복음주의적 측면에서 더 많은 희망을 봅니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좌파”나 “사회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종교라는 영역에 국한시키고 공적인 삶에서는 배제하는 포스트모던적 철학적 자유주의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니콜라스 월터스토폴프(Nicholas Wolterstorff), 알

빈 플랜팅가(Alvin Plantinga),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와 같은 기독교 철학자 세대에 의지하여 문화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 세대가 허락한 영역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고크(Mike Goheen)이나 제이미 스미스(Jamie Smith) 같은 사상가들은 모든 사물에 대한 기독교의 다양한 관점을 흥미롭게 설명하였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아돌포 가르시아 드라 시엔라(Adolfo Garcia de la Sienra)가 그랬지요.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학술적 영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악마와 거래하지 않고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해방된 공간을 공유한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서구 세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 기관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관들이 간과한 중대한 문제점은 이들의 성장이 보다 깊은 기독교적 성찰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보통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며, 두 가지 형태의 유혹이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정부의 자금 제공 동력 프로그램을 허락하라는 지속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학계의 지도자들은 지역 내 기독교 공동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대신, 정부 자금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세속적인 연결고리가 부착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교수들을 학생 서비스 분야에서 교환 가능한 구성품으로 간주하려는 유혹입니다. 한 기독교대학의 학장이 “모든 교수는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툽니”에 조직적으로 규정된 “직업”으로부터 학생들의 영적 형성은 별도로 체제놓음으로써 이중적인 체계들을 효과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최용준 **세속화 외에 국제적으로 또 어떤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Answer 닉 랜팅가 모든 문제들은 대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단순화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실패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 없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향한 무관심, 사랑 없는 마음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하여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개인의 번영을 최대화하기 위한 삶의 방식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패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라는 질문, 곧 그리스도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최용준 **교수님께서 학문적 연구를 통해 증명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요.**

Answer 닉 랜팅가 제 관심은 두 가지로, 다소 대립적인 내용입니다. 그중 하나는 다음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부족 단위에서부터 지역적 단위에 이르기 까지 서로 다른 문화들이 그들만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문화 속에 구현해내는지를 함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는 시편 찬송가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 전통이 대부분 계승되지 못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영역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저는 두 명의 한동대학교 동료와 카이퍼적 “시각”을 갖고, 고등교육에 대한 소크라테스적인 접근과 유교적 접근의 교차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관심사들은 저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문화를 넘나들며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관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독교 고등교육의 관리와 커리큘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엘 카펜터(Joel Carpenter), 페리 글렌저(Perry Glanzer)와 제가 공동 집필한 세계의 기독교 고등교육에 관한 논문이 내년 1월 어드만출판사를 통해 출간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관심은 범세계주의로 흐르지 않으면서 나라 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세계주의는 어떠한 통제도 없이 단순히 문화적 다양성들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환상에 의존합니다. 유명한 언어들 한데 모아 탄생시킨 에스페란토(Espe-

ranto)어는 바로 언어 차원에서의 범세계주의를 보여줍니다. 에스페란토어로 노래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듯이,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호소 없이 특별히 문화적 맥락에서 통일성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와 같이 오랜 기간 다른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가교” 역할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결눈 가리개 비유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전통 사회에서는 발을 갈 때 동물들의 눈에 결눈 가리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나귀나 소들이 똑바르게 쟁기를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특정 문화에 머무르도록 돕는 문화적 결눈 가리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적 결눈 가리개는 우리로 하여금 신선한 물의 근원이나 약탈자들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각각의 문화적 자원을 지렛대와 같이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동시에 영향력 있게 문화를 넘나들며 일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전통 농경문화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레를 끄는 동물의 결눈 가리개를 제거할 때, 가축의 이듬을 외치거나 때로는 가축의 목덜미를 만지는데, 이것은 결눈 가리개를 제거했을 때 동물들이 두려워 날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넘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최용준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성숙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swer 닉 랜팅가 초기에는 한국 사회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알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놀라는 것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통합된 문화이자 동북아시아에서 장구한 역사로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한 한국은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둘러싸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닌 가장 놀라운 자원 중 하나는 바로 스승과 권위자를 향한 뿌리 깊은 존중 의식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반기문 총장과 같이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기여하거나 기독교 공동체에서 국제적인 역할을 한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기독교 고등교육이 순전한 기독교적 접근을 이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기관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동대학교는 이 일들의 기반이 되는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최용준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50

C. S. Lewis
1898.II.29
1963.II.22

C. S. 루이스 서거 50주년

한국에서 되살아난 루이스의 숨결, 그 13년

루이스 서거 50주년, 그리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첫 권으로 하여 해외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통해 루이스가 이 땅에 정착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홍성사가 펴낸 루이스 도서들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C. S. 루이스 서거 50주년 기념 행사

2013. 11. 22(금) 저녁 7:30 합정동 양화진책방



Coming Soon

당신의 벗, 루이스 Yours Jack 10월 출간 예정

385통의 편지로 만나는 루이스와 그의 사람들!

670면 내외 | 양장·보급판

순례자의 귀향 Pilgrim's Regress 11월 출간 예정

지적·영적 순례자로 살다 천국으로 '귀향한' 루이스의 자전적 소설!

320면 내외 | 양장

홍성사

T. 333-5161 <http://www.hsbooks.com>

WORLDVIEW SPECIAL

역사의 무게

역사도
오직
성경에 의해
올바로 조명될 때에만
진정한 무게를
가질 수 있다.



종교개혁, 역사가 아니라 현재이다.

📍 김중락 (경북대 교수, 세계관연구소 소장)



약 500년 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도사이며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교회의 면벌부(Indulgence) 판매에 항의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후 서방가톨릭교회는 크게 가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분열되었다. 이 분열은 일부인에게 '종교개혁'(deformation)으로 간주되지만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종교개혁(the Reformation)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루터의 사상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루터의 사상은 1520년에 저술된 세권의 책에 담겨있다. 루터의 저술은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향』과 『교회의 바빌론 유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이 세 권의 책에서 추출한 그의 중심 사상은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론(justification by faith only)'과 '만인제사장설(priesthood of all believers)'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상은 당시 교회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교회가 정한 성사와 전통에 대한 순응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쳤고, 각 교구의 목회자들을 사제라고 불렀다. 우리말 '사제'와 '제사장'은 둘 다 'priest'라는 용어의 번역이다. 구약시대 타인의 속죄를 위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며, 타인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를 드려주는 이가 제사장이다. 루터는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은 어떠한 외적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다른 사제나 제사장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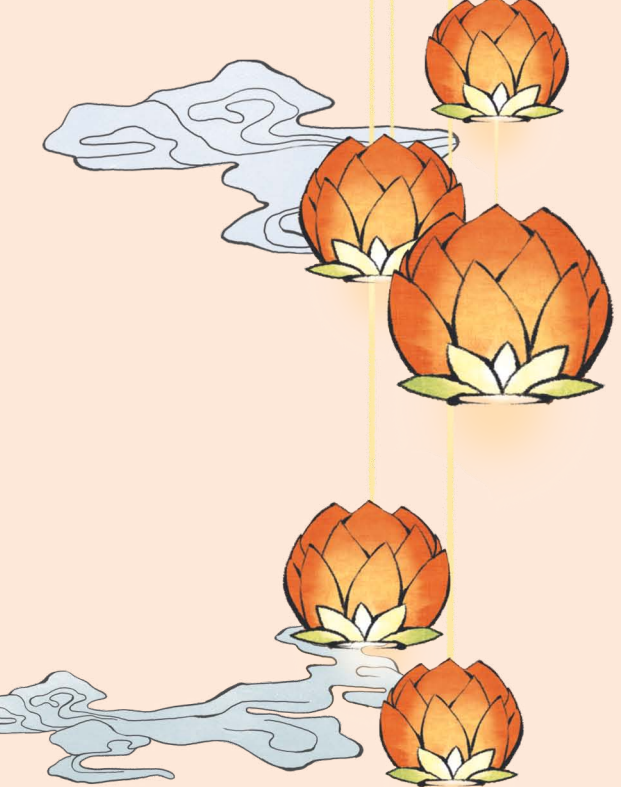
그러면 과연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를 분열해야 할 만큼 중대한 오류였던가? 그리스도인의 믿음행위 그 자체는 그 궁극적 목적이 구원이다.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가는 참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참된 교회라고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교회의 또 다른 큰 잘못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무위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스도 스스로 제사장이므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짐으로 더 이상 희생이 필요없는 죄사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 모든 이가 자신의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에 있어서 여전히 특별한 사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면 이 어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도전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루터는 이러한 교회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열의 아픔을 감내했던 것이다. 즉 루터의 가르침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다면 분열을 감수하고서라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교회의 오류는 단번으로 끝나지 않은 현상이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그리스도 이후 교회는 끊임없이 오류에 빠지고, 또 그 때마다 새로운 개혁 운동이 있었다. 교회의 역할이 강했던 서양 중세 천년동안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새로운 수도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개혁의 가치를 높였다. 그러나 여러 수도회들은 그 역할이 끝나면 다시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새로운 개혁은 새로운 수도회가 감당하였다. 베네딕트 수도회, 클뤼니 수도회, 시토수도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리고 도미니크 수도회 등이 같은 길을 걸었다. 이것은 교회는 항상 타락에 빠지기 때문에 개혁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교개혁으로 생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개혁교회’(Reformed Church), 그들의 신앙을 ‘개혁신앙’(Reformed Faith)이라 칭한다. 협의로는 칼뱅파 교회와 칼뱅주의(Calvinism)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에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하나 있다. 바로 “개혁주의”라는 용어이다.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길은 없다. 이는 분명 ‘reformed’가 아니라 오히려 ‘reformism’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reformed’가 완료된 개혁을 의미한다면 ‘reformism’은 늘 개혁하는 정신에 더 무게를 둔 개념이다. 즉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개혁교회를 도입하면서 앞으로 개혁을 지속해서 나아가겠다는 정신도 같이 설정한 것이다.

한국 기독교 지성의 자살

최근 수년간 가톨릭교회와 불교계는 한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나날이 그 교세를 더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초에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청빈한 삶을 산 것으로 인해 세인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었고,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에서 일생을 헌신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는 가톨릭 교인들뿐 아니라 전 국민들을 감동으로 울리고 있다. 또한 불교 지도자였던 법정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산 것으로 인해 불교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바꾸어 놓고 있다.

반면 프로테스탄트 교회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수년간 개신교는 가톨릭과 불교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불신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돈문제, 여자문제로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며,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까지 하는 상황이다. 큰 교회 담임목회자의 은퇴 예우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타락의 핵심을 보여준다. 공식적인 퇴직금은 물론, 수익의 위로금, 아파트, 차, 그리고 연금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어느 회사 직원들이 이 같은 대우를 받는단 말인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말씀대로 살아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평생을 말씀

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단에서 외친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교우들과 세상을 실망시킨다면 수많은 개신교도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할까? 평생을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느껴야 하는 소외감은 어떨까? 엘리의 두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지도자들이 누구인가? 성도들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낭비하고, 지나치게 많은 사례를 받고 있는 목회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 채 흡니와 비느하스이다. 교회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여기는 이들이 흡니이고 비느하스이다.

강단은 복음과 진리 대신 억지와 광대놀음과 무례로 가득 차 있다. 극단적 근본주의는 모든 국민과 타종교인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회의 재정은 사치와 내부 잔치로 낭비되고 있으며, 이웃을 위한 봉사와 희생은 커녕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의 타락과 오염을 어찌 짧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있리라.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성직주의의 대두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개혁이전의 사제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규정하고 구약시대의 레위지파인양 행동한다. 시각 매체의 기독교 관련 방송을 보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종교개혁가들이 반대하던 화려하고 권위적인 성직복을 입고 출연한다. 검은 손과 근검의 표시로 장식 없는 검정색 가운을 입고 다녔던 종교개혁시기 목회자들과는 그 출발이 다르다. 강단에서도 그들은 성도들의 지적자살을 유도한다.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

감히 따지는 사람들

이러한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상황은 500년 전 루터가 경험한 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의 한국교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교

회를 만들어야 할까? 모든 상황이 교회의 분열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루터의 종교개혁기에도 에라스무스와 같은 이들은 교회의 분열보다는 교회내부에서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교회의 모습이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타락했음을 감안할 때 에라스무스보다는 루터의 선택이 더 옳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알을 낳았고 루터는 그 알을 부화시켰다”란 말처럼 종교개혁은 에라스무스 같은 이들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아직 한국교회에는 기회가 남아있다. 분열을 논할 때는 아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가는 에라스무스와 같은 개혁가들이다. 지금 에라스무스같은 인물이 없다면 곧 우리는 루터와 칼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개혁을 외치는 많은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음은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개혁주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도 감사한 일이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교회의 타락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한때 개혁을 부르짖던 이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 종교개혁가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히 따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잠잠했다면 개혁교회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단회로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다. 지금 일어나야만 하고, 또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사건이다.



김중락 경북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이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계간 《개혁신앙》의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역사에 대한 생각

권태경 (총신대 교수, 기독교문명연구원 역사분과장)



“ 기독교 역사관이란 세가지 관점, 즉 구속사관, 섭리사관, 목적론적 사관을 의미한다. 구원사관이라 함은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을 말하며, 섭리사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즉 역사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는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사관은 역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한다는 점이다. ”

지금까지 역사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학자들간의 약간의 논쟁이 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지만,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역사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사의 사고와 해석이 필요하다. 이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데,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의 이 관점은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관점(전제, presupposition)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 역사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역사 연구에 있어 전제는 불가피하다. 이 전제는 역사 이해와 해석에 기초가 된다. 이 전제를 인식 또는 판단의 기본 틀이라는 점에서 안경 혹은 콘택트 렌즈에 비유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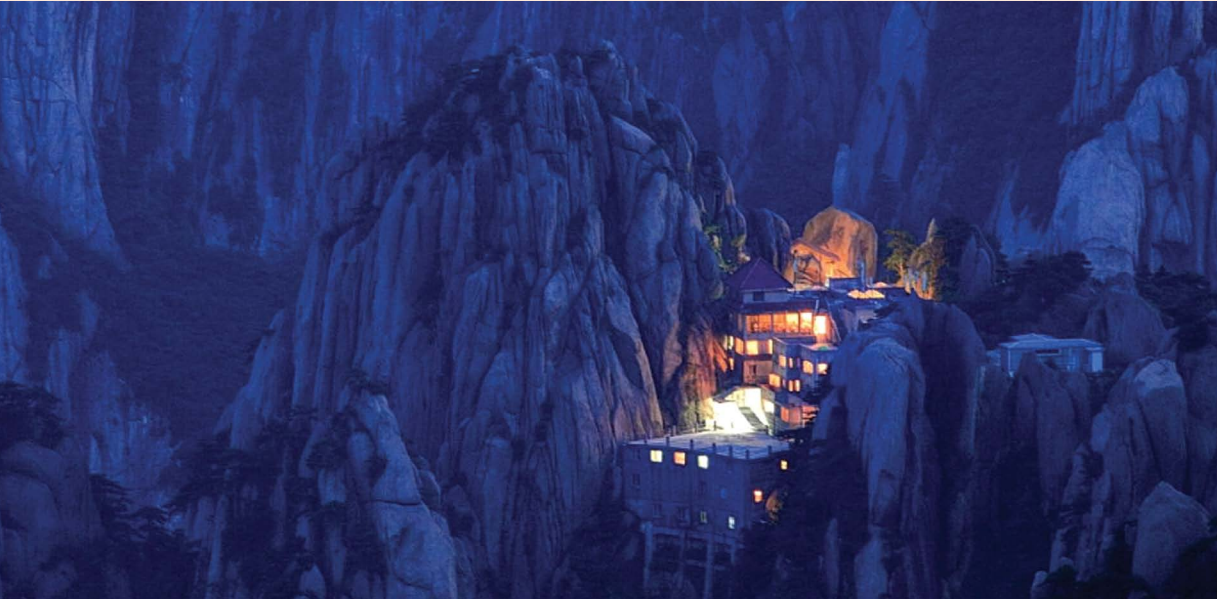
역사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 관점의 역사를 주장하였다. 기독교적 관점의 역사이해를 위해 성경적 조명이 요구되는데, 이를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 한다. 무엇보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본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개념이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이며 출발이다. 기독교 역사관이란 세가지 관점, 즉 구속사(구원사)관, 섭리사관, 목적론적 사관을 의미한다. 구원사관이라 함은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을 말하며, 섭리사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의 주권과 경륜, 즉 역사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는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사관은 역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한다는 점이다.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긴 개혁자 마틴 루터

대표적인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역사는 말 위에서 창 시함을 하는 하나님의 무대였다. 루터는 역사적 사건이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의미(meaning)를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비(mystery)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루터는 역사적 사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분명해진다고 하였다. 신앙을 가진 자들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기 때문이다.

루터의 역사이해는 기본적으로 그의 신학사상과 관련이 있다. 한편, 루터는 하나님의 행위가 감추어진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숨겨계시는 분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숨겨진 의미는 루터의 역사관에서 중요한데, 루터는 하나님을 숨겨진(hidden) 하나님과 계시된(revealed) 하나님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은 역사에서 숨겨져 있지만, 피조물을 통해 계시됨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이시며,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루터는 역사를 창조부터 심판에 이르는 하나의 드라마로 보았다. 즉, 이는 역사의 종말론적 이해를 말하는데,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하는 학자는 독일 예를 랑겐 대학 교수인 알트하우스(Paul Althaus)이다. 그에 의하면, 루터의 신학은 세상의 종말을 기대하는 면에서 볼 때, 철저히 종말론적이다. 루터에 의하면, 역사와 세상은 종말에 이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루터는 카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자신의 시대상황과 관련시켜 이해하였다. 루터는 결국 역사의 종말이 도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개혁자 칼빈

종교개혁자 가운데 칼빈의 역사에 대한 생각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루터의 역사이해 보다 더 발전적인 구속사적이며 종말적인 기독교적 역사이해는 칼빈에게서 보여진다. 칼빈은 먼저 일반적인 세속적 역사이해에 잘 못된 전제를 지적한다. 그것은 역사가 우연의 산물이라는 운명(fortune)과 역사를 결정론적으로 보는 숙명(fate)을 말한다.

칼빈의 역사이해는 루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보면 더 발전적이다. 칼빈은 역사에서 감각(a sense of destiny)을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결정적인 순간(a kairos)이라고 하였다. 필자가 볼 때 이 역사의 순간(때)의 개념은 우리에게 시대에 대한 사명 의식을 갖게 하며, 개혁의 원동력과 정당성을 제공해 준다고 본다. 이처럼 칼빈에게 카이로스(a kairos)와 관련있는, 역사의 현재성은 그의 역사이해에 중요한 전제였다.

칼빈의 역사이해에 있어 분명히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신적 위엄을 드러내면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포하고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하면서, 스스로 역사의 주관자로 선포하고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으로 역사의 주관자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 섭리는 인간의 모든 역사에 해당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말한다.

루터와 칼빈의 역사이해를 비교할 때, 역사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문제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루터에 의하면, 세계의 역사에서 인간은 경이감을 가진 구경꾼이었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참여자였다. 루터주의자들의 역사이해가 신학적이고 논쟁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칼빈주의 역사가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 역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역사를) 교회사에 국한하기 보다는, 교회의 운명을 정치와 사회의 발전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교회와 종교적 문제가 아닌, 세상과 정치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칼빈은 루터보다 더 근대적이라고 본다.

칼빈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역사에 있어서 루터처럼 구경꾼이 아닌, 역사의 참여자로 보고있는 점은 칼빈의 역사이해에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칼빈이 역사에서 인간을 단순한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않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역사의 변화와 개혁의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인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칼빈은 루터와 다른 역사이해 방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종교개혁시대의 역사해석에 있어 새로운 패턴의 초석을 마련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종교개혁자들에게 보여진 기독교적 역사이해는, 역사의 동인을 하나님으로 보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루터와 칼빈에서 나타난, 기독교적 역사이해는 신앙적 전제와 관점, 통찰력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는 무엇보다 인간에게 자신(개인), 사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근대 포스트 모던이후, 학문과 역사의 세

속화는 기독교적 안목으로 역사를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요컨대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독교적 역사이해는 삶과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바른 기독교적 역사이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필자가 볼 때, 기독교적 역사이해에 중요한 전제는 성경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요컨대 바른 기독교 역사이해를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에 근거하여 보다 폭 넓은 역사적 재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적 역사가관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고백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과 역사에 대한 바른 기독교적 이해가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의 전 우주적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인간과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안목은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고, 나아가 기독교적 학문이 지향하는 신앙과 삶, 그리고 학문과 경건의 균형을 갖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시대(역사)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일을 찾아 사명감을 갖고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적 역사 이해이다. 역사는 삶의 문제이다.

기독교적 역사가관은 기독교 사관의 핵심인 구속사관, 섭리사관, 종말사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섭리하심과 목적하심의 경험을 삶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권태경 현재 총신대학교 교수이자 기독교학연구회 역사분과장으로 섬기고 있다. 영국의 세인트 안드류 대학교, 미국의 칼빈대학교 연구교수이었으며, 저서로는 「대학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과 역사」, 「청년은 늘 나를 젊게 한다」 등이 있다.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개혁

☉ 이상규 (고신대학교 교수)



이 글의 목적은 본질에 있지 않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재해석해 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국교회 상황을 종교개혁의 빛으로 조망해 보자는 것이다. 물론 16세기 상황을 오늘의 한국교회 상황에 평면적으로 대비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개혁(the Reformation)'¹⁾의 동기와 정신이 교회 개혁과 교회 건설에 있었다는 점에서 상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1.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일반적으로 4세기부터 교회의 변질 혹은 부패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때를 기준으로 이후의 기독교를 '콘스탄틴적 기독교'(Constantinian Christianity)라고 구별하여 부른다. 재세례파는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교회의 변질 및 국가권력과의 야합의 분기점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들의 개혁 이념은 '복귀'(restitutio) 곧, 313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역사신학자 윌리엄 커닝햄(William Cunningham)은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제1권 7장에서 2세기에 이미 성경적 교회관이 변질되는 조짐이 보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고위 성직계급의 출현, 둘째는 은혜의 교리에 대한 오해와 곡해, 셋째는 성만찬의 효과에 대한 과장된 개념의 대두였다. 교회역사

는 흑인 영가의 가사처럼, 부흥과 쇠퇴, 개혁과 속화의 순환을 경험하였고, 교회사는 그 영육의 자취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루터교 학자들은 루터가 아니었다면 종교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루터가 아니었다 해도 개혁은 불가피했다. 그만큼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탈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회의 부패였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은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곧 성직자들이 부패했다는 뜻이다. 물론 중세시대의 교리적 오류니 탈선, 제도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성직자들의 비윤리를 정당화하는 '겸직제도'(pluralism)나 '부재직임제'(absenteeism), 성직자들의 취침을 묵인하게 해주었던 세금제도(Concubinage fee)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도의 개선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했다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제도 또한 불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밝혀낸 이가 「현대, 이상, 이데올로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화란의 하우즈바르트(B. Goudzwaard)이다. 그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

서 '교회의 부패'는 근본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 곧 성직자들의 부패였다.

성직자들의 부패와 관련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1300년 2월 22일 교황 보니파이스 8세(Boniface VIII, 1294-1303)는 새로운 세기를 기념한다며 칙령을 내려 희년을 선포하고 "이 희년 동안 성 베드로와 성 바울 성당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해준다."고 공포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의 교황 관저에는 48개의 루비, 72개의 사파이어, 45개의 에메랄드, 66개의 커다란 진주가 박혀 있었다고 한다.²⁾ 그리고 돈 만드는 천재로 알려진 요한 22세(1316-1334)는 각종 징세제도를 고안해 내는가 하면 성직과 면죄부를 판매했다. 종교개혁 직전인 알렉산더 6세(1492-1503) 때는 그 수준이 극에 달했다. 그는 교회의 관행과 규율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극도의 타락과 방종의 삶을 살았는데, 교황이 되기 전에 이미 몇 사람의 정부와 3남 1녀가 있었고 교황이 된 후에는 7명의 자녀를 더 얻었다고 한다. 1447-1517년 어간의 교황 중 절반이 자녀를 두었으며, 15세기 말 콘스탄츠 교구의 경우 매년 약 1,500명의 사생아가 출생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의 성씨(姓氏 가문명) 중 MaTaggart는 '사제의 아들'(son of the priest)을, MacNabb는 '수도원장의 아들'(son of the abbot)을 뜻한다고 한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는 소위 '여성의 집'(Frauenhausen)이라는 환락가가 있었는데, 주 고객은 성직자들과 고위 관리였다. 또 1414년 11월 보덴 호숫가에 있는 작은 도시 콘스탄츠에서 교회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종교적 손님을 상대할 700여 명의 매춘부들이 유럽 각지에서 몰려왔다고 한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Vita clerici est evangelium laice)이라는 유명

한 경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성직자들의 도덕적 상태를 암시한다. 종교개혁 초기의 교황이었던 아드리아누스 6세(Adrianus VI, 1522-1523)는 신성로마제국 뉘른베르크 국회에 있는 교황 사절 프란체스코 치에레가티 추기경에게 훈령을 보내면서 "루터 이단으로 교회가 받는 어려움의 책임은 성직자들, 특히 교황청과 그 성직자들에게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 훈령에서 "교회 안에는 가증할 만한 폐습이 많으며, 이러한 병폐들은 교황을 포함한 성직자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세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직 교육의 부재 그리고 무분별한 성직자의 양산에 있었다. 이것이 중세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적 요인이었다. 티르나겔(T. S. Tiernagel)에 의하면 16세기 초 유럽 인구의 85%가 농민, 노동자였고, 10%가 통치 그룹 혹은 귀족이었으며, 성직자는 5%에 달했다고 한다.⁴⁾ 1500년 당시 세계 인구를 약 5억으로 추산하는데, 유럽의 인구를 1억으로 본다면 성직자 수는 무려 5백만 명이 된다. 독일의 경우 쾰른에만 약 5,000명의 사제와 수도사들이 있었고, 수녀들을 포함한 독일 전체 성직자의 수는 무려 1백50만 명에 달했다. 인구 30명 당 1명의 성직자가 있는 지역도 있었다고 하는데, 성직자 과다 배출은 성직자의 지적, 영적, 도덕적 수준을 저하시켰고, 상호 경쟁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권위와 신뢰도 상실하게 만들었다. 성직자 수의 급증으로 그 혜택이 줄어들면서 성직자들 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불가피해졌다. 성직자들 간에 상호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와 사치를 누리며 방종을 일삼는가 하면 또 다른 쪽은 극도의 빈곤과 가난에 시달렸다. 오늘날 개신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도 성직

1) 루터는 Reformation이라는 독일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단어는 혁명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버먼은 Reformatio를 '독일혁명'이라고 불렀다.

2) 브루스 설리,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277.

3) 한스 C. 후프, 『교황들』(동화출판사, 2009), 113.

4) T. S. Tiernagel, *The Reformation Era*, (Concordia, 1968), 11-12.

교육의 불균형과 과다한 성직자의 배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성직자 수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남한 인구를 4천5백만으로 볼 때 인구 450명당 1명의 성직자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체 성직자의 10% 이상이 임지가 없는 '비활동 인력'으로, 이들은 스펀지도 예상 못한 제3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 성직자의 과도한 배출은 분별없는 개척교회의 난립과 교회 분열, 그리고 성직자 상호 간의 과도한 경쟁의 원인이 되었다. 성직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었고, 교회 개척은 신국 건설이라는 거룩한 소명보다는 생계를 위한 종교활동, 섭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 교회개혁으로서의 종교개혁

16세기의 개혁을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개혁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들의 목표는 교회의 쇄신에 있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이라 칭하게 된 것은 The Reformation을 '종교개혁'(宗教改革)으로 번역한 일본의 용례를 따른 것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교회사를 가르쳤던 왕길지(G. Engel) 선교사는 The Reformation을 '교회 개정사'(教會更正史)로 번역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리적인 개혁운동(Reform)이 아니라 영적부흥(쇄신)운동(Revival)이었다.⁵⁾ 영적 각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 교리적인 개혁은 이데올로기화되기 쉽고, 교리적 기초를 상실한 영적 각성은 신비주의 혹은 주관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개혁은 교리적 개혁과 영적 부흥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6세기 개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 설교: 교회개혁의 기초

개혁자들의 중요 관심사는 말씀의 회복이었고, 이것이 개혁의 수단이 되었다. 개혁자들은 교회 갱신의 핵심을 말씀의 권위 회복에 두었고⁶⁾ 설교를 통해 이

를 실현하고자 했다. 청교도인 존 코튼(John Cotton, 1584-1652)도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하여』(De Regno Christi)에서 “영국교회는 교회의 표지를 회복함으로써 개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설교를 교회개혁의 수단으로 간주했다.⁷⁾ 개혁자들에게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였다. 따라서 '성경 중심'(sola scriptura)이라 할 수 있으며, 성경의 바른 설교를 통해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으므로 '말씀의 신실된 전파'를 참된 교회의 표지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캠브리지대학의 피터 브룩스(Peter Newman Brooks)는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목회적 성격을 띤 운동이었다.”고 했다.

칼빈은 신학자이기에 앞서 설교자였다. 성경의 권위는 그에게 중요한 문제였고, 성경 외의 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루터보다 더 철저했다. 로마카톨릭이 성전(聖傳)이라 부르는 '전통'(tradition)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견해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을 지닌다.”고 보았으나,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 전통을 폐기했다. 그리하여 루터교회에는 여전히 로마교적 잔재가 남아 있으나 개혁교회는 로마교적 잔재를 말끔히 청산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개혁교회는 루터교회보다 더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었고, 이런 점에서 베인톤은 “개혁주의는 루터주의를 다시 개혁했다.”고 하였다.⁸⁾ 개혁자들은 성경을 강조하고 진실한 말씀의 증거를 참된 교회의 중요한 표식으로 삼았는데,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참된 교회의 표식(signum)으로 말씀과 성례를 들었다. 그러나 루터가 말씀의 올바른 선포만을 강조했다면, 칼빈은 말씀의 바른 선포뿐 아니라 청중도 올바르게 들어야 함을 강조했다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청중은 성경강해와 설교를 경청하고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선포가 되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스도 청중은 설교의 바른 선포를 위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2) 하나님 중심사상

종교개혁은 성경 본연의 기독교로의 회복운동으로, 그 근거와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과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대신했으나 개혁자들은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천명했다. 이것이 '성경 중심' 사상이다. 또 개혁주의자들은 교황이 절대적일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중심일 수 없다, 곧 교황이 중심일 수 없다는 뜻이었다. 교황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사죄와 은혜의 수여자라는 당시 교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거나 영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성경의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공로의 결과라는 변질된 구원관을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무력화시켰다. 특히 고위 성직계급(교황)의 출현은 교회를 급속도로 인간 중심의 계급공동체로 변질시켰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는 인간의 권위가 커지고 교회 구조의 계급화가 심화되고 있다. 종교적 권위주의가 한국교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직분이 계급화 되면서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다. 2세기를 지나며 2직분론이 급격히 힘을 잃고 3직분론이 대두되면서 교회직분의 계급화가 나타났다. 교회 구조는 권력 구조로 재편되었고, 성직은 계급화 되었다. 이렇게 교회와 교회 구조는 세속화 되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과 야합했고, 둘째는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노회, 총회가 지나치

게 권력화 되어, 세속 정치계를 방불할 정도로 경쟁적인 이권 다툼의 장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노회장, 총회장이자 하여 '장'이라는 교회 직분의 '수위성'(首位性)을 말하지만, 영어로는 그냥 중재하는 사람(moderator)에 불과함을 기억하자.

3) 가난해질 수 있는 교회, 부와 물량주의

중세교회의 근본적 문제점 두 가지는 권력에 대한 야망과 부에 대한 탐욕이었다. 이러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으나, 수도원이 부를 축적하면서 부패하였고 다시 수도원 쇄신운동이 일어났다. 부는 영성을 파괴하였고, 나그네 공동체를 안주공동체로 전락시켰다. 루이스 스피츠에 의하면 16세기 유럽의 토지 3분의 1은 교회 소유이거나 교회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 한다. 교회는 많은 토지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각종 현금제도로 재산을 축적했다. 돈과 권력 때문에 8살, 11살짜리 아이가 추기경이 되기도 했고, 한사람이 4개 도시의 대주교직을 겸하기도 했다. '겸직제도'와 '부재직임제'(absenteeism)가 정당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양심'이라 불린 성 버나드(St. Bernard)는 교회나 성직자가 부를 통제할 신앙적 자제력이 없으면 차라리 가난해지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교회에는 그러한 영적 통제력이 없으니 “교회는 가난해야 한다.”고 했다. 루터는 부(소유)는 분배되어야 하고 핍절된 이웃을 위해 분배되지 않는 제물은 '소유의 본질'(nature of possession)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았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중산층 이상의 교회가 되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종교 귀족들이 생겨났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성직자들은 정도 이상의 부를 향유하고 있다.

5) Jeremy C. Jackson, *No other Foundation, the Church through Twenty Centuries*, Cornerston Books, 1980), 제11장 참고.
 6) B. C. Milne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E. J. Brill, 1970), 133, Paul L. Avis,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14.
 7) 오덕교, 『청교도와 교회개혁』, 204. 코튼은 교회사를 설교의 역사로 해석하면서 3시기로 구분하여 말했는데, 첫째 시기가 하나님 말씀만이 왕 노릇하던 초대교회 시기이며, 둘째 시기는 말씀의 암흑기였던 중세 시대였고, 셋째는 말씀이 다시 부흥하여 모든 국가와 교회에서 말씀이 왕 노릇 하였던 종교개혁 시대라고 했다.
 8) Bainton, *The Age of the Reformation*, 39.

4) 성속 이원론의 극복

종교개혁은 기독교적 삶의 의미에도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다. 성속(聖俗)의 이원론적 구분이나 성직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라는 잘못된 가치를 바로잡아 주었다. 루터는 수도원의 맹세에 눈물겹게 감동했다고 하였지만, 후일 『수도원 맹세에 관하여』(De votis monasticis)라는 글에서 수도원적인 삶만이 고상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사람이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하였다. 이것이 직업에서의 ‘소명론’(召命論)인데, 그는 모든 직업을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라고 봄으로써 성속 이원론을 극복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었다. 성화의 삶은 세속으로부터 격리된 수도원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속화 될 위험이 있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일깨워 준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제 한 것이었다. 종교개혁은 교리적 개혁(Reform)뿐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에 의미를 부여한 영적 부흥(Revival)이었다. 16세기 개혁은 교회와 신자의 삶에 실로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예배 의식이나 제도는 신학을 반영하므로 종교개혁 이후 예배당 양식이 달라졌고, 예배 의식도 달라졌다. ‘개혁’이란 교회의 개혁이었고, 교회적 삶과 신자의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5) 사회개혁

종교개혁은 교회와 신학의 갱신뿐 아니라 사회를 포함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개혁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루터보다 칼빈의 기여가 컸다. 루터가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자였고 기존 질서(정치권력)와 평행적 관계에 있었다면, 칼빈은 거기서 진일보하였다. 루터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면 칼빈은 하나님 중심주의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신관은 인간관, 사회관

등 신학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칼빈주의자들은 사회를 성속 이원론에 따라 이분화 하지도 않았고, 사회와 그 제도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모든 제도, 조직, 직업, 직위 등 질서를 설정하셨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예속된 수종자(servants)로 표현된다.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의 근거와 가능성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성속의 이원론적 구분은 개혁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속의 영역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속 이원론은 영역 분리를 조장할 뿐 아니라, 두 영역에서 각기 다른 행동양식을 갖게 한다. 즉 종교행위를 단순히 주일 예배 및 그와 관련된 행위로만 제한하게 하면서, 세속적 영역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없게 한다. 둘째, 사회나 사회구조는 절대불변의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세적 세계관에서는 우주와 사회를 위계 체계적 존재의 사슬로 보았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사회조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불변의 구조가 아니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 사회는 타락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개혁주의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근본주의적 성향이 짙었다. 사회 현실에 대해 무관심했고, 문화적 소명에 대해서도 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한국교회의 문제

1) 신학과 교회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수적인 ‘성장’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 성장 외의 다른 가치들은 경시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건설한 신학과 윤리이다. 신학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터이자 축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신학 없는 교회’ 혹은 ‘교회 없는 신학’을 추구하는 양극단에 놓여 있다. 신학 없는 교회란 건설한 신학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교회들은 교회

의 전통이나 교회를 무시하는데 목회자 개인의 주관에 크게 좌우되어 주관주의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처럼 교회 성장만 이루면 되지 신학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반대로 ‘교회 없는 신학’이란 교회를 고려하지 않는 신학운동으로, 칼 바르트(K. Barth)나 폴 틸리히(P. Tillich)는 신학을 “교회를 위한 학문”으로 이해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 건설의 의지가 없는 신학은 철학화 되거나 사변화 되기 쉽고 소위 ‘학문추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런 신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한다. 종교다원주의도 이런 유형의 신학이다.

2) 지도자들의 윤리 의식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 의식 수준이다. 교회의 부패는 바로 성직자들이 부패를 뜻한다. 중세 교회의 부패도 성직자들의 부패 때문이었다. 부패의 중심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물질과 권력, 명예에 자유한 성직자는 상당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존경도 받는다. 신앙적 삶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지만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가를 자문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에게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당하게 살아가려는 경건한 처신이 요구된다.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최선의 방법은 목회자가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조롱 받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법을 지키며 정도를 가고 의로운 일에 솔선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검소한 생

활을 가르치고 실천하면 교회 내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시대 사치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교회 지도자들이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교회나 교회 기관에 관여하는 지도자들이 공익을 추구하고 사리(私利)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자 하는 소박한 의지일 것이다. 그것이 성직자들의 권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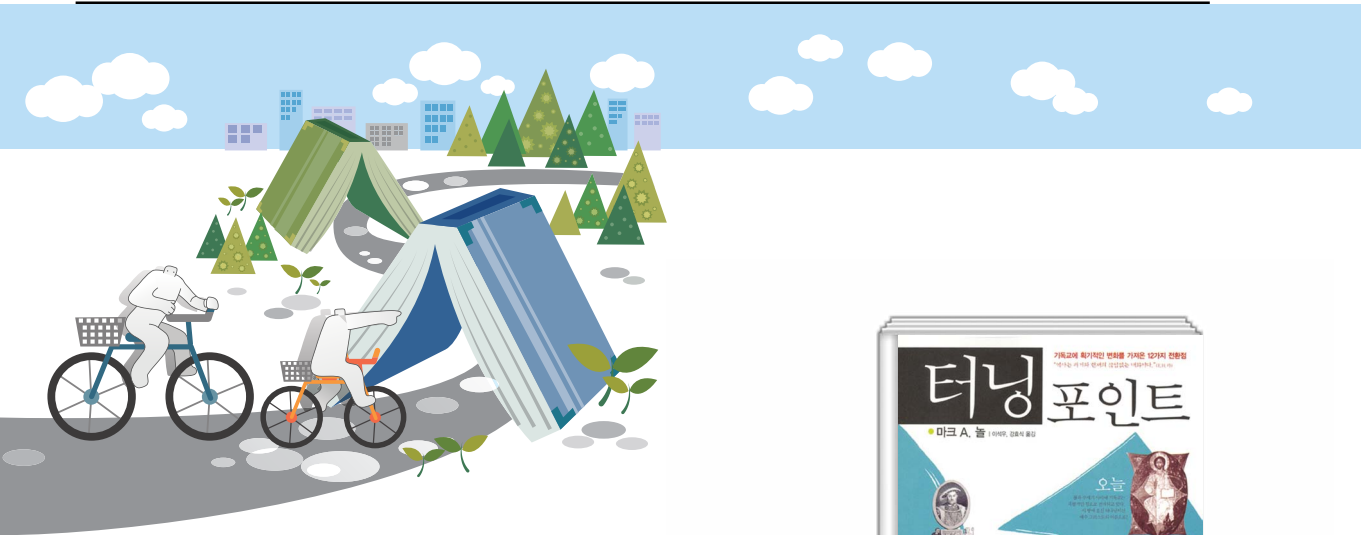
4. 결론을 대신하여

중세교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교회는 초기교회의 생활방식인 ‘나그네 의식’을 상실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다. 즉, 나그네적 공동체여야 할 교회가 안주 집단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교회가 이처럼 역사 현실 속에 안주하려고 할 때 세속 권력과 야합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신앙적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 나그네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새겨주신 삶의 방식이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역사였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민·이동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다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라고 믿게 되면 개혁은 불가능해진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자성(自省)하는 일이다. 종교개혁을 16세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묻어두지 말자. 데오도 베자가 말했듯이 “교회는 개혁되었으므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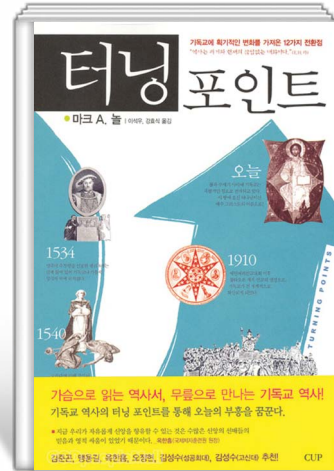


이상규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이자 부총장이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거쳐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신학대학, 호주신학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사상연구소장, 신학과장, 교무처장, 신학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연구이사, 개혁신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으로 있다. 쓴 책으로는 「교회개혁사」, 「교회개혁과 부흥운동」,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교양으로 읽는 역사」 등이 있다.



기독교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12가지 전환점 터닝 포인트

김수홍



마크 A. 놀 저 | 이석우 역 | CUP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12가지 사건

과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12가지 사건은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에 더하여, 그토록 중요한 12가지 사건의 전말을 살펴봄으로 신앙의 깊이와 폭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런 궁금증과 기대감을 충분히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덤으로 역사 공부의 재미도 일깨워 준다. 본인을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로 소개하는 이 책의 저자 마크 놀(Mark A. Noll, 1946~)은 27년간 휘튼대학에서 역사 및 교회사를 가르치다가 노틀담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역사학자이다.

이 책은 평신도와 입문 과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거의 기독교에 대해 알게 함으로 그들을 도우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는 책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왜 과거의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이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흥미와 도움을 주는가?"로 책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를 선정해서 고찰하는가?"로 내용의 제시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는 기독교 역사를 아는 것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하나

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직접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2) 성경 해석에 대한 풍부한 관점을 제공한다. 3) 주어진 문화 속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4) 하나님이 자신을 배반하는 교회를 지탱해주시는 분이심을 인식할 수 있다. 5)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 더욱 겸손해진다.

또 저자는 교회사의 일반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터닝 포인트를 고찰해 나가는 방법이 1) 교회사 연구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 중 중요한 사건을 꼬집어내어 복잡한 주제에 어느 정도의 질서를 가져올 수 있고, 2) 교회 역사의 실재를 구성하는 인간성, 복잡성, 불확실성 등이 드러나는 특별한 순간들을 부각시켜 그것들을 주의 깊게 성찰해볼 수 있으며, 3) 한 사건을 자세히 연구함으로써 계획된 특정 사건, 행동 및 우연한 사건 등이 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더 전문적으로 해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밝힌다. 그는 비록 터닝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주관적 일지라도, 이런 선택의 과정 자체가 그 주체에게 큰 유익을 주는 훈련이며 또한 경험상 이 방법이 학생들에게 해석상의 의견을 개진 할 기회를 주었다고 덧붙인다.

기독교의 터닝 포인트

저자가 선택한 12가지 터닝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첫번째는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생명력을 갖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두번째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로, 이단의 도전을 타파하고 정경을 정리함으로써, 오늘날 정경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세번째는 451년 칼케돈 공의회로, 기독교론과 신앙의 기초를 다진 중요한 신조가 만들어졌다.

네번째는 530년 베네딕트 수도회칙으로, 수도원 갱신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삶의 균형을 잡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다섯번째는 800년 샤를마뉴의 대관식으로, 기독교 제국이 유럽 전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여섯번째는 1054년 동로마 총대주교의 교황 사절단 파면으로,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의 분열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일곱번째는 1521년 보름스 국회로, 마틴 루터가 찰스 5세 앞에서 그의 신앙적 신념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현재 개신교의 주춧돌이 되었다.

여덟번째는 1534년 영국의 수장령으로, 영국 국왕이 프로테스탄트나 카톨릭 성직자의 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아홉번째는 1540년 이그나티우스 로올라의 예수회 설립으로, 카톨릭의 부흥으로 복음이 세계 선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열번째는 1738년 존 웨슬리 형제의 극적인 회심으로, 기독교의 영적 회복과 갱신의 계기가 되었다.

열한번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유럽 기독교 제국의 종말과 함께 보다 넓은 기독교 팽창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열두번째는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로, 이후 불타오른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책에 대한 개인적 포인트

이 책 한 권으로 기독교 역사 전체를 훑을 수 있다. 위에 제시된 12가지 터닝포인트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유대교에 그 시작점이 달아있는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교와 구별되게 되었고 그 과정은 어떠한지, 현재 내가 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최종본으로 만들어졌는지, 예수가 가진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볼 것인지, 인성과 신성의 다른 통합 형태는 종교-국가 관계를 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로마카톨릭, 정교회, 프로테스탄트는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유럽에서 번성하던 기독교가 퍼져 나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왜 18세기 들어 유럽에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여파는 무엇인지, 왜 20세기에 선교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지, 20세기 말 로마카톨릭, 정교회, 프로테스탄트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각 사건의 역사적 맥락과 이해관계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복잡해 보이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 과정의 중심축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름만 들었던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가령 정경과 감독제도를 다룰 때에는 아타나시우스와 이레네아스의 글을, 니케아 공의회를 다룰 때는 니케아 신조를, 수도원을 다룰 때에는 성 베네딕트 수도원장 선발에 대한 글을, 로마 교황의 권위를 다룰 때는 그레고리 대교황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동서 교회의 분열을 다룰 때는 제2차 니케아 공회와 정교회-카톨릭 관계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종교개혁을 다룰 때는 루터의 글을, 그 외 에라스무스, 로올라,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등과 같은 신앙인들의 글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글을 읽다보면 수백 년 혹은 천 년 전 사람들이 마치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같이 느껴지면서, 해당 사건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 책에서 돋보이는 다른 하나는 책의 시작과 각 장의 마지막에 수록된 질문이다. 특히하게도 이 질문들은 저자의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교회 사람들과 나눔을 하던 독자(목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각 장은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많아서 한 번 읽어서는 그 핵심을 잡기 어려운데, 각 장 마지막에 있는 탁월한 질문을 통해,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누구든 동참한다면 책 한 권으로 이천여 년의 기독교 역사의 핵심 줄기를 캐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가 왜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도 얻으리라 감히 확신한다.

김수홍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이후 홀스쿨링, 대학교육, 입시에 관련된 일을 하였다.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바른 소명관을 가지기 위한 대학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더 공부하고자 현재 동대학원 고등교육학 박사과정에 있다.

자연과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뱅뱅 하우스

숙박시설

스탠다드형(총8실) | 스위트형(총8실)
로열스위트형(총1실)



연수시설

컨퍼런스 홀 | 소형세미나홀



부대시설

산책로 | 잔디광장 | 성서박물관 | 바베큐장
수목원 | 식당



교육과 자연 그리고 감동까지

2013년 9월 새롭게 개관한
뱅뱅하우스는 깨끗하고
안락한 교육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학술세미나,
기업체 연수, 워크샵,
캠프 등 원하시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뷔페 및 단체 식단이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한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뱅뱅 하우스 특전

50만평 대지의 수목원에서의 휴식
(예약제 운영)

성서 고고학 박물관 바이블랜드 Tour
(예약제 운영, 50%할인)

경기도 여주시 하거리 380

예약문의
02) 529 7878 (내선 219번)

WORLDVIEW COLUMN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학교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에게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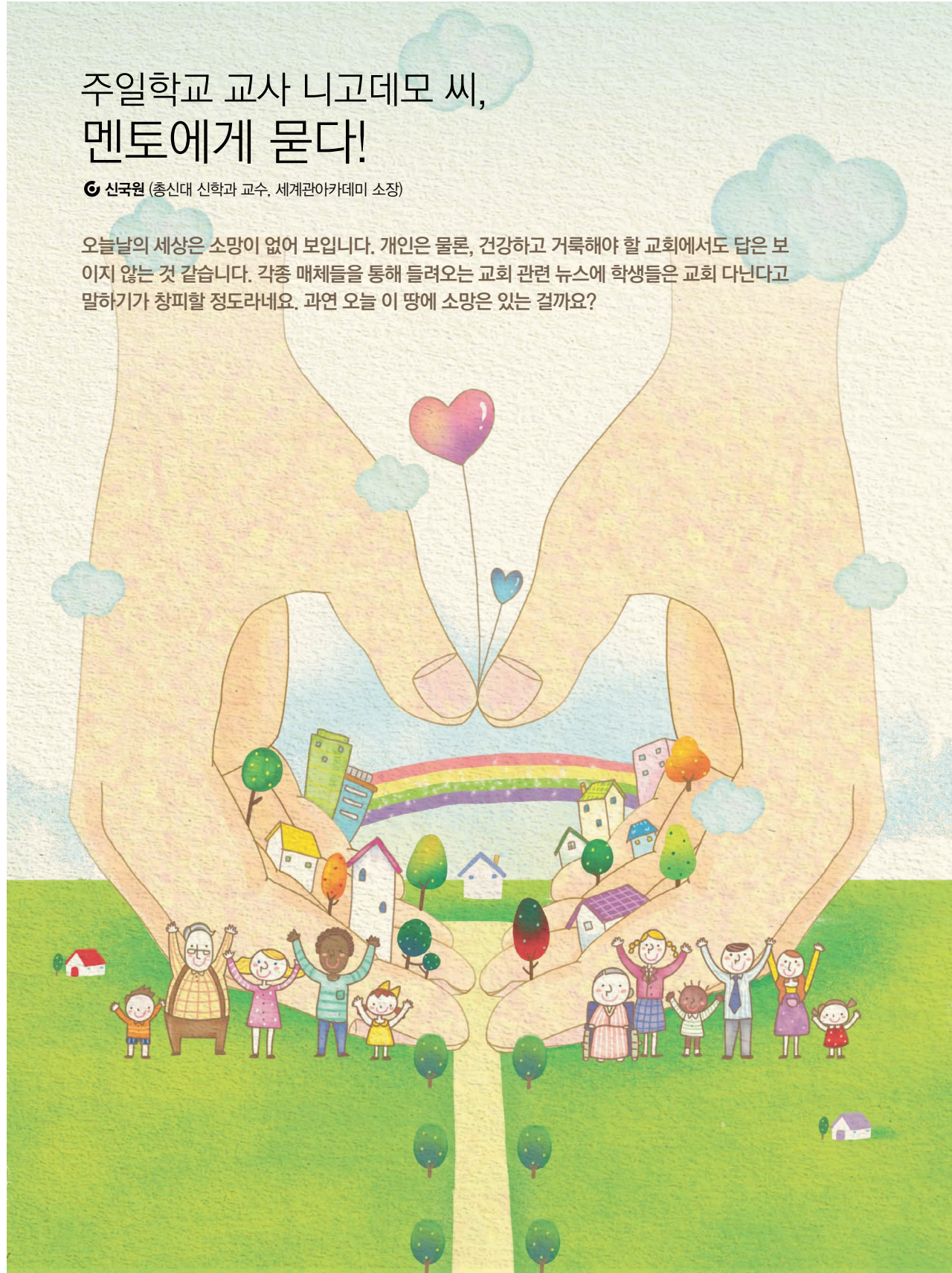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 교사 필독서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에게 묻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오늘날의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은 물론, 건강하고 거룩해야 할 교회에서도 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종 매체들을 통해 들려오는 교회 관련 뉴스에 학생들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라네요. 과연 오늘 이 땅에 소망은 있는 걸까요?



Q1.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의 죄, 점점 더 부패해가는 이 세상, 오히려 죄를 선동하고 두둔하는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걸까요?

일반은총

죄악을 통한 타락은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세상이 즉시 심판과 종말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지 못합니다. 타락은 단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삶의 방향을 비틀어 놓았을 뿐입니다. 죄와 악은 선한 것을 망쳐놓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단지 선한 세상에 기생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비틀어 왜곡시켜 놓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대개 90%정도 진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남을 해할 만큼 건강해서 일을 저지르고요. 이처럼 악은 선을 “비틀고, 오염시키고, 토막”냅니다. 매춘이나 동성애를 한다고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성적 매력은 유지되지요. 죄악은 선을 잘못 사용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세상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이 곧장 파멸로 치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은총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나 보존하는 은총 말입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 이상 기후가 맹위를 떨치는 중에도 사철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찾아오는 것은 창조주의 신실하신 은총 때문입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문화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Q2. 아, 성경을 바로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 수 있군요!

세상의 소망

죄악으로 망가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인간의 타락상을 알수록 세상과 삶은 암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처럼 살려던 세상은 아무런 의미나 소망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연 질서가 비록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미는 바래버렸습니다.

성경은 비록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도 소망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으로 자멸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직후 즉각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며 뛰어드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악과 비참함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은 힐문이 아니라 회개로의 초대였습니다. 죄인의 위치를 돌아보게 하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인간이 벌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공허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의 땅으로 쫓겨날



인간들에게 무화과나무 잎을 대신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를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의 수치와 연약을 가려주기 위한 피 흘림은 장차 예수께서 행하실 궁극적 사죄의 제사를 예표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오로지 죄악 세상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습니다.

소망의 뿌리

하나님께서서는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보여주신 은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담긴 창 3:15을 첫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지요. 성경의 핵심적 메시지는 그가 죄악 세상이 바라볼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가

끔 학생들에게 그 말의 의미를 정말 알고 믿는지를 다그쳐 묻곤 합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는 모두가 세례교인이지만, 혹시라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원하는 믿음이란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한 일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으로 살거나 헌금이나 봉사를 잘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례 받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인 것은 그가 아주 특별한 분이고 또 그가 한 일이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Q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 학생들이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

구원하는 믿음의 첫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일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삼은 성인이나 교육자,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마호메트를 알라라고 불렀다면 펄쩍 뛰며 부인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진리의 길을 가르쳤지만 자신을 길이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오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는 복음서가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데 주력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삼 년간 동고동락한 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러 세상에 왔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란 세상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고난 받아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물론 부활도 가르치셨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죄인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참될 때 그 사실과 의미는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로 인해 죄악과 의심과 무의미와 좌절로 살 소망이 없던 존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과 삶의 변혁

저는 삼 대째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20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절망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사람이 되었지요. 지독한 의심과 방향 끝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시고 또 죽으셨다는 사실이 실감되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벌의 대상이 아니라 은총의 대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체험한 날은 정말 놀라운 날이었지요. 당시 많이 불리던 “어둔 밤 지나고 밝은 낮이 되었네”라는 찬송의 의미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삶도 달라졌고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열정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할 소망이 회복되자 곧 소명도 분명해졌습니다. 죽어 일 년간 시도 때도 없이 솟던 눈물은 시간이 가면서 말랐지만 눈은 분명히 새롭게 열렸지요.

방향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정이 넘쳤고 관계도 좋아지고 인정과 사랑도 받았습니다. 시야도 넓어져 스스로도 놀랄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공부할 꿈을 주신 겁니다. 그 비전에 따라 계획이 생겼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그 시절 비전 속에서 이미 바라본 길입니다.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내 그 길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경험입니다. 모든 신앙인이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Q4. 살아 있는 자의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산 신앙이라 이거죠?
이것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었군요!
구원이 흥분이 아닌 평안임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구원의 확신과 평안함

구속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구속의 내용을 잘 모르는 채 믿음만을 강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믿는다”는 단어는 타당사이므로 목적어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언어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행위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때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하산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신앙교육에서 믿을 대상과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물론 분명하고 확신 있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간혹 설교를 듣다 보면 어쩌서 저토록 힘이 없을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안산 가실 분은 다음 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라는 안내 방송처럼 또는 그보다 더 메마르게 들리면 그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분명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믿는 대상이 바를 때 믿음 자체가 문제의 해결과 평안을 주는 예가 많습니다. 아기는 부모를 믿기 때문에 품에 안겨 편안히 잠이 듭니다. 운전기사를 믿기에 목적지에 도착할지 불안해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확신과 소망에서 오는 평안을 줍니다.

사회와 칭의의 온전한 구원

구속은 죄인과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속과 관련된 모든 영어 단어로 ‘다시’를 뜻하는 접두어 re-가 붙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구속은 redemption이고 거듭남과 중생은 각각 regeneration과 rebirth입니다. 회복이란 예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창조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을 말합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이 회복되려면 먼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는 그냥 용서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돌리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시금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 원수가 된 우리는 부자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신학에선 이를 칭의, 즉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중 진리입니다. 세례는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고 거기서 나올 때 부활에 참여하여 온전한 새사람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구속은 소극적으로는 사죄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칭의입니다.

오래 전 캐나다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이른 봄날 호수에 낚시를 간 어린 소녀가 물속에 빠진 지 30여 분 만에 건져져 소생한 것입니다. 얼음처럼 차디찬 물속에서 모든 기관이 정지했다 살아났습니다. 드물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부활절 시기와 맞물려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문제는 숨이 멎어 있는 동안 피가 돌지 않아 두뇌가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했지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케 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속이 순간적인 동시에 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면을 아는 것은 신앙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왜 아직도 저 모양이냐고 비난하며 사람은 결코 안 변한다고 보는 패배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믿는 이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를 포기하고 적당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Q5. 오늘날의 교회와 스스로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구원이 시점일 뿐 아니라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네요. 이걸 “성화”라고도 하죠?**

“그러므로”의 윤리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은 안전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난파선이 부두에 예인되면 침몰할 염려는 없지요.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수리하는 곳에 들어가서 구멍 난 곳과 고장 난 곳을 고쳐야 다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배로서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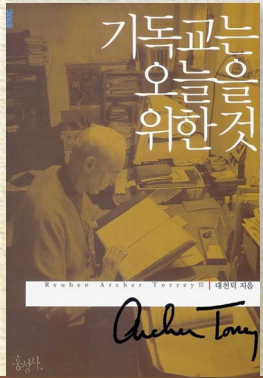
구원 받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온전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리와 의무의 회복을 통해 거룩한 삶을 누려야 진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 바르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그러므로”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이 따르지 않는 구원이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포기하고 삽니다.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은 가능하기에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명하십니다. 구원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work in us) 하시듯 우리는 구원을 밖으로 이루어(work out)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새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이상 MP) 등이 있다.



대천덕 지음 | 홍성사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

민수진



기독교와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2천 년 전의 역사를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는 것이 어쩐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가. 공부 아니면 미디어로 접철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거룩'이니 '절제' 등은 기성세대보다 더 큰 괴리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일반 직장보다 편하다(?)는 교직에 있으면서도 나의 가치관은 세상의 질서와 끊임없이 부딪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나는 기독교 세계관 관련 강의나 책들을 찾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독교, 생명력이 넘치는 기독교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대천덕 신부님의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은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시켜 준 책 중 하나다. 이 책의 탁월함은 필자의 시야가 개인은 물론 공동체, 나아가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책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이야기하며, 우리도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온통 '나'에게만 집중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광야 생활을 통해 강건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가장 지혜롭고 선하고 올바른 길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강건해져야 한다.

대천덕 신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사명이 시작된다고 본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힘써 그분을 찾아야 하고 일단 뜻이 계시되면 기꺼이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 교회에 속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며, 성경공부를 비롯한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분명한 목적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면 '타락한 인간'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인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 차원의 사랑을 받은 인간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 생활을 영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개인이 변화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와 학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우리는 사회 전반 곳곳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웃의 빈곤, 소외, 비참한 상태에 관심과 정성을 쏟으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사명의식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닐까? 성령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영성의 비밀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영위할 선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부르심 중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대천덕 신부님은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을 의미하며, '그의 의'는 나를 위한 의뿐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의 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께서 순종하는 마음은 물론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상급이 없다. '하라'고 하는 대신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천덕 신부는 성경의 원리가 2천 년 전은 물론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치,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하나님

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셨고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급을 없애고 빈곤을 방지하고 구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사업, 토지법, 교회와 학교 등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경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첫째, 사업에서는 사업에 종사하는 태도와 목적이 중요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확장'이 사업의 동기가 되어야 하며, 선하고 유익하고 건설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 계명, 원칙에 부합하는 윤리적 방법을 사용하되, 냉정하고 초연한 자세로 경기 동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건설하고 침착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든 행위와 비용 지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수익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성령의 원리에 따라 토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천덕 신부는 토지와 재산의 구별을 주장한다. 재산은 노동의 결과로 한정하고, 토지는 그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토지를 동등하게 사용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인간 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가족에게 자기 소유의 땅을 기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토지가치세 제도는 생산, 고용 분배, 경제 안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교회는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책임져야 한다. 교회가 자비와 정의의 차원에서 지역 단위로 가난의 문제를 접근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점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자비의 차원에서 전도하고 코이노니아를 전제한 나눔을 실천한다. 특히 기술과 조합 형성을 통해 효율적 경영, 법적 전문성을 나누게 되면 진정한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의 차원에서는 토지가치세 등의 토지개혁운동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기도 사역이 이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기도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실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서의 기도이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믿음과 열정적인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넷째, 학교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 학생들이 클럽에 가거나 술을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어떤 심리학, 교육학, 경제학 등을 가르쳐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인본주의 및 이성 중심의 관점을 배격하고 분명한 성경적 입장으로 전환하여 일반 학계에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서로 협력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만남의 장 그리고 성경적 토대 위에서 각자의 전공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 책에는 이 외에도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과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구체적인 예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누군가 '현재에 대한 깊은 불만족을 느끼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했다. 아무나 가질 수 없고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읽어내는 눈, 그 속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들을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 기도 하면서 시대를 거슬러 변혁을 꾀하는 추진력을 갖춘 자, 무엇보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이러한 멋진 인생은 우리뿐 아니라 매주 주일학교에서 만나는 개구쟁이 아이들에게도 허락되어 있다. 아니, 예정되어 있다.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은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법한 책이다. 따라서 내(교사)가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로 전달해 주는 것이 좋겠다. 내가 내 아이를 가장 잘 알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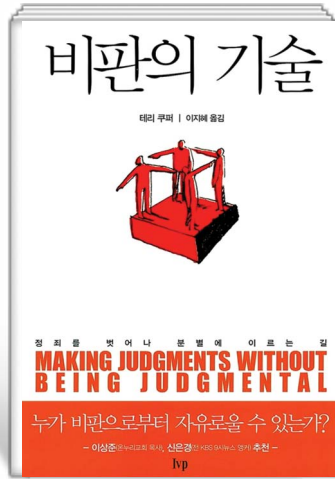
문이다. '나'라는 통로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질서의 회복을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하게 될 날을 그려 본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목숨 걸고 가르쳐야 한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연령과 배경은 다양하다. 나는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할 법한 이야기는 적당히 편집곤 했다. 그러나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려서 들었던 이야기, 스쳐 지나간 장면, 무심히 바라봤던 누군가가 뇌리에 박혀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 중요도에 상관없이 말이다. 그렇게 보면 내가 걸러내기보다는 성령님께 의탁하고 지혜를 구하며 부어 주시는 대로 쏟아내는 것이 답이다.

단순히 변호사, 회계사, 외교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도록 토지법을 개정하는 법조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투명 경제를 실천하는 회계사, 거국민의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외교관이 비전이 되는 아이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꿈이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성령 충만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청지기로 길러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원대한 계획 아래 우리를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셨다.



민수진 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이며, 부산광역시 교육청 독서교육지원단, 논술지원단, 문항분석·개발팀,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창의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외국어로 한국어교육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해외 파견을 두고 기도중이다. 현재 수영로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다.



테리쿠퍼 지음 | 이지혜 역 | NP

테리 쿠퍼의 <비판의 기술>

◎ 이경직 (백석대 교수)

사람마다 중요한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백석대학교 전임이 되기 위해 이사장님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 앞에서 최종 면접을 볼 때였다. 여러 질문이 주어졌고 나름의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장님께서 질문하셨다. “철학을 하는 사람은 비판적이란 말씀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에 비추어 볼 때, 그리 긍정적인 질문은 아니었다. ‘비판’이라는 단어가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라는 철학의 사명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당시 이사장님께 드린 대답은 이러했다. “네, 맞습니다. 철학 하는 사람은 비판적입니다. 또한 비판적이 되도록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비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깎아 내리거나 무너뜨리고자 하는 비난성 비판이 있으며,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더 온전하

게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긍정적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비판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사장님께서 이 대답에 만족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쭙어 볼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전임교수로 임용된 것을 보면 그 대답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테리 쿠퍼의 <비판의 기술>을 읽으면서 비판에 대한 내 견해가 더 다듬어지고 정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비판을 금지함으로써 발전이나 개선의 가능성까지도 막아버리거나 모든 일에 항상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양극단 사이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비판할 수 있을까? 그런 비판이 있다면 그 비판은 어떤 종류의 비판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쿠퍼는 잘못된 비판은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데서 시작한다고 여긴다(14면).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낯설고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나 범주에 따라 그 상황을 정리하고 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셈이다. 낯선 곳에 처음 도착한 여행객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익숙한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감을 얻는다. 이를 테면 낯선 인도의 도시에서 맥도날드를 발견했을 때, 그 매장 안에서 얻었던 평안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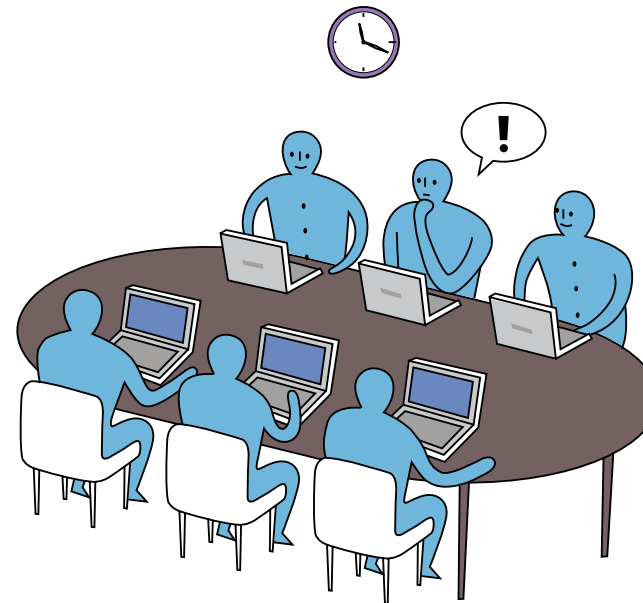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안정감은 상대방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에 맞추어 이해할 때 얻게 되는 것으로,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인도를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맥도날드에서만 식사하는 사람은 인도를 참되게 체험하고 이해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낯선 상황을 자기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새롭게 판단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비록 안정감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더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쿠퍼에 따르면 비판적인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갖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사람이다. 비판적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도 자기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사람을 거부하기 위해 자기 기준을 사용하는

사람이기도 하다(18면). 권위주의에 반발하는 진보 진영에서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21면).

쿠퍼는 우리 모두가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24면). 비판주의는 도덕적 우월주의와 지적 우월주의로 나타나는데(25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금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일종의 우상 숭배에서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었다(26면). 비판에 “남은 업신여기고 자기 의를 강화하는”(29면) 경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 비판주의는 남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나의 잘못을 감추는 역할을 하기에 자신을 비판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된다(30면).

하지만 쿠퍼는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윤리적 잘못은 비판받아야 한다. 핵심은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행위를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37면). 건전한 비판은 상대방의 인격을 배려하며, 상대방의 행위가 잘못되었더라도 상대방의 동기를 불신하지는 않는다(39-40면).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마음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는 있다(43면). 건전한 비판은 자기 의견을 보류하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생각을 편견 없이 들어주는 위험과 그에 따른 두려움을 감수하는 것이다(50면). 쿠퍼가 비평적 사고를 부정적 사고가 아니라 신중한 사고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52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안정감을 주고 더 편하더라도,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안정감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건전한 비판이다(54면).

쿠퍼에 따르면 자기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상대방의 생각을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다. 이러한 오만은 그의 안정감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참된 자신감은 오만이 아닌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다(59면). 오만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삶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없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를 빚게 된다.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60-61면). 쿠퍼에 따르면 자기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속에는 불안정한 자이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64면). 그런 자들은 겉으로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자신을 경멸하며(66면) 계속 불안감에 시달린다.

쿠퍼는 자기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고 보았다(69면). 그들에게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보다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만 하는 거울 같은 청중이 필요할 뿐이다(69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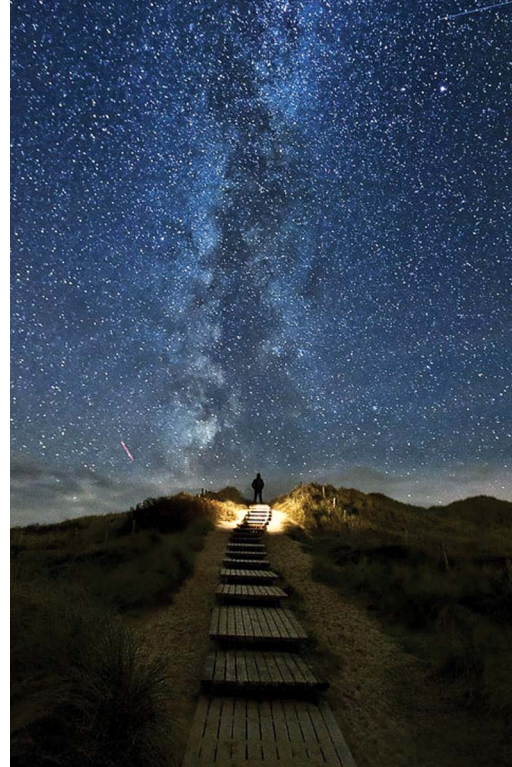
들은 자신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언제나 다른 사람만 탓하고 비난한다(71면). 쿠퍼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려면 그들의 연약한 자이를 품어 주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72-74면). 이것은 어린 자녀들이 자신들의 일을 실제보다 더 과장해서 말할 때나 부모를 완전한 존재로 이상화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 주는 것과 같다(76-77면). 쿠퍼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안정감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과도하게 바라지 않으며 상대방과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은사와 능력, 긍정적인 자질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한계와 잘못, 내면의 고민을 깊이 인식”할 수도 있다(84면). 자신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까지 제대로 알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참된 겸손을 지닐 수 있다(85면). 또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은사와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다(86면).

이런 자신감과 겸손을 지닌 사람은 상대방을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영역도 존중한다(96면). 오만한 사람은 내면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 건전한 비판은 상대방의 인격을 배려하며, 상대방의 행위가 잘못되었더라도 상대방의 동기를 불신하지는 않는다 ”
(39-40면)

외부 자극을 실제보다 크게 인식해서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상대방을 자기 기준에 따라 조종하려 든다(97면). 쿠퍼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분노라는 감정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분노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부정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분노도 가볍게 여기기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99면). 쿠퍼에 따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려면 자신의 분노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101면) 때문에 서로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106면).



그런데 하나님 외에 완전한 존재는 없다. 쿠퍼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치심이 잘못된 비판을 낳는다고 한다. 특히 수치심은 행위보다는 인격에 초점을 둬으로써 잘못된 행위를 한 자신이나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 쿠퍼는 지나친 완벽주의나 이상주의가 수치심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죄와 파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116면). 그러나 건전한 죄책이 과도한 죄책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122면). 과도한 “자기비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128면). 또 “다양한 외부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과, 훈수 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135면) 때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도 문제없이 잘 지내게” 되는 경험도 할 필요가 있다(136면).



이경직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Konstanz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논문을 썼다. 백석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신학석사, 신학박사를 마쳤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장으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Platons Raumbegriff>, <기독교와 동성애>, <기독교철학의 모색>,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생애와 사상>, <플라톤과 기독교>가 있고, 공저로는 <신앙과 논리>, 번역서로는 <사랑의 모델>, <헬레니즘 철학>, <철학자 예수>, <공간 개념>, <기독교철학> 등 13권이 있으며, “이신칭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믿음 이해”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쿠퍼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목회 현장에 적용한다.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이론적으로 잘 포장된 대답 대신, “상대방의 암울한 고통 속으로 뚫고 들어” 가야 한다(152-153면). 그러나 모든 이야기를 다 긍정하는 극단적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156면). 건전하지 못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권위적 사고의 소유자이다. 자신이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야기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164면). 반면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는 공감 능력과 상호 존중에서 대화를 시작하려는 겸손, 그리고 자신의 관점과 기준을 인정하는 자신감까지 모두 소유한 자이다. 이런 사람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상대방과 건전하게 소통하면서도 상대방의 인정이나 통제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용납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온전케 하는 비판보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비판이 많은 현실에서, 쿠퍼의 이 책은 한 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그러나 만일 이 책이 잘못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또 하나의 구실이 된다면, 저자는 크게 슬퍼할 것이다. 자기 기준을 절대시하는 잘못된 비판은 지적하되 그러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자가 주장하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비판’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올해로 종전 60주년을 맞이하였다. 과거 '우리의 소원'은 동일이었으나 오랜 분단으로 통일에 대한 세대 간의 이해와 추구가 상이하다. 그럼에도 “분단국가”는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며 지금도 우리는 전시상황이다. 지난 호에서는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의 경험을 중심으로 남북의 관계와 정세, 현재 북한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분단을 넘어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소장)

북한 지하교회의 실태

평양 호텔의 룸 냉장고 안에는 신덕 우유라고 북한이 자랑하는 생수가 여러 병 들어 있다. 한 선교사가 평양호텔 식당에서 경험한 일이다. 서빙하던 청년이 신덕 물을 마시면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기에 생명은 조물주에게 달렸다고 대꾸했더니, “알아요. 하나님께 달렸지요.”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지하교회 교인이었다. 또 6.25때 어머니를 남겨 두고 간신히 월남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재미교포 자매가 북한을 방문했다. 어머니 묘에서 통곡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찬송가를 부르는데, 누군가 따라 부르기에 돌아보니 17살 된 어린 조카였다. 할머니께 300곡 정도를 배웠는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따라 부르더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 선교사가 중국에서 보트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가서 70대 후반 정도의 어느 지하교회 장로님을 만났다. 보트를 타고 함께 가자며 탈북을 권유했는데, 거절하기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 240명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많은 청년을 양육하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매일 셋째 주일을 금식기도일로 정하고 이 환란이 하루 속히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금식기도라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선교사는 지하교회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헤어지기 직전에

기도제목을 물었더니 “남조선에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우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남조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했단다.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 간절하고 진지한 믿음이 있는지 자문해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듣고도 위협하다는 이유로 북한선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북한 할머니의 기도를 생각하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에서 ‘땅끝’은 지리적 개념도 있지만, 고난의 개념도 있다. 즉, 환란과 고난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박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기독교인을 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있는데, 그중 가장 처참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1970년대 말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세 노인이 처형되었다. 북한에는 위생검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생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분하에 갑자기 덮치는 것이다. 신흥군의 한 농가를 덮쳤는데, 노인 세 명이 성경을 가운데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세 노인은 신흥군 공설운동장에서 공개처형을 당했는데, 현장을 목격하고 탈북한 이영선 씨의 증언에 의하면 고문을 당했는지 세 노인이 비틀거리면서 나왔고 할 말이 없느냐고 하니 한 분이 기도를 하자 옆에서 들던 두 노인이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첩판 위에 노인들을 하나씩 눕히고 강철 압축판을 서서히 내려 쳐

행했는데, 두개골이 터지고 뇌수가 사방으로 터지면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등 끔찍한 광경이었다고 한다. 북한에는 다섯 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약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기독교인은 약 7만 명 정도로 추측된다. 6.25 전쟁 이후 2000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하교회의 공통적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 빨리 오는 것이다.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종말론적 소망을 갖겠는가? 중국 심터에서 양육 받고 있는 함흥 출신의 탈북 여성을 만났는데, 이 자매는 아들이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험한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 중국에 왔다고 한다. 자매의 이웃동네에서는 죽은 딸의 시체를 동물로 착각한 어머니가 인육을 먹고 기관원에 잡혀갔다는 말도 했다. 북한 동포들이 더 이상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고 신앙도 지키도록 돕는 것이 북한선교의 당면과제이자 핵심이다.

왜 그리도 모질게 기독교인을 그렇게 박해하는가?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이런 것이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수령과 노동당과 인민대중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인민이 수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인민대중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수령은 오류도, 흠도 없는 완전무결하고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

이다. 수령의 명령은 노동당을 통해 인민에게 전달되며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령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무오류성이라고 하는데, 즉 수령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 삼자가 결합된 것을 삼자전일체라고 하는데, 이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과 같다. 또한 주체사상에는 마치 기독교의 십계명처럼 10대 원칙도 있다. 북한에서 권력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3대가 이어지는데, 이를 삼대 권력세습이라고 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난 가문, 백두혈통을 강조하는데,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자상속권과 유사하다.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조사를 받을 때, 말씀을 전한 후 다시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본 소감을 물었더니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바꾸면 주체사상 체계와 비슷하다고 대답했다. 다만 성경에서는 사랑, 소망, 믿음을 강조하지만, 주체사상은 혁명, 증오, 투쟁을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다. 정국을 찌른 것이다. 어느 기자가 바레인 공항에서 잡힌 김현희에게 당시 심정을 묻자, 평소 그토록 충성하고 받들었던 수령님 생각은 추호도 안 들고 무엇인가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현재 김현희 씨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

남북 관계의 커다란 두 물줄기

올해로 분단 67년이 되었다. 남북 관계를 돌이켜 보면 커다란 두개의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중 하나가 남북 대화이다. 6.25가 끝나고 1953년부터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 무려 606회의 대화와 회담이 오갔다. 나는 이 중 상당 부분을 대표로 나갔다. 이렇게 많은 회담에서 226건의 합의서가 도출되었지만, 현재 이행되고 있는 것은 한 건도 없다. 결국 그동안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해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모세와 바로 사이의 협상과 유사하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는 모세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재앙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이 거듭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 강박해졌고 완악해졌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13회나 나온다. 오늘날 북한 통치자들의 마음도 시간이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있다. 지난 1월 8일은 김정은의 생일이었다. 이날 그는 측근들에게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선물로 주면서 히틀러가 패망한 독일을 어떻게 일으켜서 제3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과정을 잘 살피고 북한에 적용할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잔인한 전범을 멘토로 삼고 있는 김정은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 나갈지 상상이 된다. 기도가 절실하다.

또 하나의 물줄기는 북한의 대남도발이다. 오늘까지 약 200회 정도의 도발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도발, 위기는 두 번이었다. 첫 번째는 1976년 판문점에 있었던 도끼만행사건이다. 판문점에 있던 북한 장교가 뒤에서 도끼로 미군 장교 두 명을 찍어 죽였고, 이에 미국이 보복하려고 일어났다. 두 번째는 1994년 5월 미국의 영변 폭격 계획이다. 평안북도 영변에는 북한 핵 개발단지가 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영변을 폭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작전계획을 살펴보면 일단 미국이 영변을 폭격하면 북한은 남침을 감행할 것인데, 휴전선의 4만 8천 문의 포를 서울로 향해 소고 탱크로 밀고 올 것이다. 미군 3만 명과 한국군 60만 병력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으니 미국 본토에서 40만의 병력을 투입,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F51, F111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동해와 서해에 띄워서 막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중재를 자처하며 평양으로 들어갔다. 미국 정부 특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이었다. 그럼에도 클린턴 행정

부는 예정대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폭격을 진행하려 했다. 전쟁을 우려한 레이니 미국 대사는 휴가차 서울에 온 딸과 손녀에게 사흘 안에 미국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일본으로 소개시킬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 주제 하에 마지막 전략회의를 하며 폭격 D-day를 논의하려는데, 카터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일성이 핵문제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보다 더 양보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북한에 함께 들어갔던 CNN 기자가 전세계에 중개하는 바람에, 마치 북한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되어 버렸고 클린턴은 영변 폭격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런 사건을 지켜보면서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역사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우리 민족을 대제사장으로 삼으려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어서 다음 호에는 마지막으로 북한 체제의 미래와 통일 후 남북한 교회의 모습을 다루도록 하겠다.)

제30회 기독교학문학회

기독교세계관과 학문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기독교세계관과 학문

-기초와 실천-

주제발표 : 송인규(합신대 교수), 신국원(총신대 교수)

종합토론 :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Wesley Wentworth(IVP)

2013. 11. 16 (sat)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
(호암관, 국제관)

당일 시간표

9:30-10:00 1차등록 (호암관)	주최	기독교학문연구회, 성균관대학교 교육연구소,
10:30-12:00 대학원생 발표 (호암관) 기독교신학자 세미나 (호암관)		한국기독교경제학회, 기독교보건학회, 로고스경영학회
12:00-13:00 오찬 / 2차등록 (국제관)	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13:00-14:50 개회/주제발표 및 토론 (국제관 B2)		
15:00-17:50 분과별 발표 (호암관)	문의	02-3272-4967
18:00-19:00 만찬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이 사 장 :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 김의원(백석대 부총장), 양인평(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 사 : 박상은(생병원 의료원장), 송인규(합신대 교수), 이강인(엘비전 대표), 전광식(고신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공동회장 : 김성수(고신대 총장), 김승욱(중앙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감 사 : 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실행위원회

위 원 장 : 조성표(경북대 교수)
 위 원 : 김미영(한국소도 대표), 김승욱(중앙대 교수), 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김태황(명지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신국원(총신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이진창(성균관대 교수), 장수영(포스텍 교수), 최용준(한동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최현일(생병원 연구원장)

연구본부 연구본부장 : 장수영(포스텍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 장수영(포스텍 교수)
 부회회장 : 국제협력_손병덕(총신대 교수), 대외협력_박문식(한남대 교수), 학술_김태황(명지대 교수), 연구_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총 무 : 문준호(ACSI Korea) 감 사 : 김홍섭(인천대 교수)
 학회이사 : 강영안(서강대 교수), 김홍섭(인천대 교수), 윤완철(카이스트 교수), 조무성(고려대 교수), 황호찬(세종대 교수)
 학회이사 및 경제/경영(한국기독교경제학회)_황의서(서울시립대 교수), 교육_박영주(아신대 교수), 문화/예술_서성록(안동대 교수), 분과학회장_법학_조영길(I&S법무법인 대표), 사회복지_이상무(평택대 교수), 상담/심리_전요섭(성결대 교수), 역사_권태경(총신대 교수), 융합_이우성(STEP1 박사), 의학_김지원(백석대 교수), 철학_양성만(우석대 교수)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이진창(성균관대 교수)

편집위원 : 계영희(고신대 교수), 권정태(호서대 교수), 김경민(전남대 교수), 김동원(전북대 교수), 김정호(국립한밭대 교수), 배용수(성균관대 교수), 박신현(고신대 교수), 신현호(백석대 교수), 유지황(한동대 교수), 이의영(군산대 교수), 조창근(조선대 교수), 현창기(한동대 교수)

세계관연구소 소 장 : 김종락(경북대 교수) 연구위원 : 이요한(말레이시아)

운동본부 운동본부장 : 조성표(경북대 교수)

세계관운동

대외협력위원회_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국제협력위원회_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중국사역위원회_정수균(선교사), 지역관리위원회_박신현(고신대 교수), 대학청년위원회_최용준(한동대 교수), 언론위원회_강진구(고신대 교수)

교육본부 교육본부장 : 최태연(백석대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 신국원(총신대 교수), 부소장: 이승규(합신대 교수)
 미디어아카데미 원장 : 조정민(BASIC Community Church 목사) 운영위원 : 강진구(고신대 교수), 장유진(미코필름 PD), 유지은(PD)

교재개발위원회 위 원 장 : 최태연(백석대 교수)

월간 월드뷰 대표주간 :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발행인 : 김승욱(중앙대 교수) 편집인 : 신효영

도서출판 CUP 대 표 : 김혜정 마케팅 실장 : 윤여근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 장 : 양승훈 전임교수 : 전성민 간 사 : 이계현
 이 사 : 조영택(밴쿠버 코스타 이사장), 박신일(그레이트 한인교회 목사), 김명준(밴쿠버 지구촌교회 목사), 김주영(신세계보험)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CTC 대 표 : 유경상, 팀장: 한부익, 안성희

CMCA 프로덕션 PD : 장유진, FD: 최유리

사무국 사무국본부장 : 최현일(생병원 연구원장) 대표간사 : 신효영, 간사 : 김고운, 홍정석

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출범하였습니다.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집합니다. 홈페이지 가입 시 자동으로 온라인 회원이 되시며, 일정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은 회비에 준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종류	월 회비	E 매거진	월드뷰 (잡지)	신앙과학문 (동재학술지)	논문 및 칼럼 다운로드	논문 투고자격	동영상 강좌	기부금 영수증
정회원	10,000원 이상	●	●	●	●	●	●	●
저널A	3,500원	●	●					●
저널B	5,000원	●		●				●
저널C	7,500원	●	●	●				●
온라인회원	-	●						

[납부방법]

1. CMS신청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회원님을 대신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자동이체 : 후원자님께서 직접 거래 은행에 가셔서 아래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계좌입금 :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 연간회비 납부도 가능합니다. 사무국으로 문의 주십시오.

*문의 02) 754-8004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8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가월형, 구재형, 권기웅, 김경현, 김민지, 김수경, 김찬호, 김희원, 노주하, 생명의강, 영음사, 정세열, 정필규,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실, 황보남이, 5천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봉오, 김성범, 김성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정준, 김재우, 김 준, 김철수, 김대윤, 김항아, 김혜창, 노승욱, 박광제, 박상규, 박승룡, 박찬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신기혁, 신천우, 심정하,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중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화, 이윤희, 이인수, 이항숙, 임선제, 임춘택, 임형준, 장헌일, 전정진, 전종화, 전중국, 정범재, 조은아, 조인진, 조혜경, 주경식, 최광수, 최동희,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고상섭, 김영숙, 김태태, 민수진, 방성기, 영암교회, 이은수, 이주희,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은남, 고현경,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김원평, 김경식, 김경원, 김고은,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동우, 김동준, 김막미, 김보경, 김상욱, 김성경, 김성민, 김성은, 김성인, 김세경, 김세중, 김수홍, 김승남, 김영남, 김영완, 김용석, 김우신, 김원호, 김윤권, 김은덕, 김은혜, 김재원, 김경도, 김정일, 김정호, 김준희, 김중희, 김진아, 김창현, 김판임, 김현정, 김형길, 김형수, 김홍섭, 김호숙, 나동훈, 남서희, 마민호, 박경원, 박기연, 박능안, 박두환, 박성인, 박시운,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한호,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지연, 백영은, 백현준, 서유미, 서화진, 성광원, 소중화, 손현탁, 송미정, 송중철, 송철호, 신상형, 신성자, 신성혜, 신진선, 신현주, 신형균, 신호기, 신호영,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안용준, 양병국, 양행모, 양혜원, 엄지은, 오성호, 오지순, 유건호, 유경상,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윤상현, 윤천석, 이 강, 이경숙, 이계심, 이권철, 이규현, 이길형, 이대규,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무, 이상수, 이상수, 이수미, 이승엽, 이시영, 이시영, 이선영, 이연규, 이원배, 이원재, 이은미, 이은자, 이은주,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수, 이종국, 이준성, 이지연, 이진영, 이화성, 이혜리, 이호선, 이환일, 임동진, 임 영, 임일택, 임지연, 장승재, 장옥경, 장유진, 장인숙,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경미, 정경식, 정동섭, 정문선, 정상록,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제양규,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향, 조혜선, 차봉준, 차정규, 천성빈, 최삼열, 최성두, 최세진, 최영태, 최은영, 최익수,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효영, 추진연, 태영숙, 하진호, 한인관, 한진영, 한혜실, 하찬영, 허 현, 현승건, 현하나, 홍선호, 홍정식, 홍준호, 황규영, 황도웅, 황세환,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이승환, 정상섭, 최동원, 1만7천5백 김은호, 2만 강대훈, 김경희, 김세광,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문석영, 박영혜,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손항아, 오한나, 우시정, 이 건, 이명희, 전광학, 조창근, 한정호, 한화진, 2만5천 이행연, 3만 김광순,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지원,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양성만, 오의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최용준, 추태화, 황익서, 황정진,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박문식, 서진희, 송인규,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이현정, 조무성, 10만 김미영,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손봉호, 이연철, 전광식, 최태연, 30만 홍숙의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다은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자운교회, 주님의은혜교회, 20만 명성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새로운교회, 엘비전

※회원 여러분의 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의 재정 내역은 분기별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월드뷰』는 후원을 통해 만들어 집니다.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후원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기독교세계관좌담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개혁이 뭔데

김기현 VS 최태연

지난 10월 1일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열린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에는 모처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기현 목사(로고스 교회)가 “문제는 이원론이 아니라, 혼합주의다” 하고 포문을 열자, 최태연 교수는 “이원론이나, 혼합주의나 규범을 넘어 실천으로 가자”고 응수했다. 월드뷰 독자들을 위해 당시 논쟁을 대화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Answer 김기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 근본임에도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남을 전도하기 전에 자신부터 변혁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할까에 앞서,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을 변혁하기는커녕, 세상을 닮아 가고 있습니다. 너무 닮아서 세상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최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의 이원론(dualism)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 안의 혼합주의(syncretism)가 문제입니다.

Answer 최태연 세상과 닮아서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교회,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마스크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처참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원로이신 손봉호, 이만열 교수님의 평가는 더 비판적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손교수님은 사사 시대에, 이 교수님은 비만중에 걸린 어린이에 비유하시며 돈, 권력, 명예와 관련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원인을 김기현 목사님과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원론이 아니라 혼합주의'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보자는 거죠. 교회와 세상을 지나치게 분리하면서 생겨난 문제는 이원론이고, 교회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생긴 문제는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규명하려면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죄'(sin)에 기인한다고 말씀합니다.

Answer 김기현 왜 분리가 아니라 혼합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미국의 로널드 사이더는 이혼, 돈, 성, 인종차별, 가정 폭력 등의 문제에서 비신자와 신자는 무론하고 복음적 그리스도인조차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개혁파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도 복음주의가 그리스도

의 것이 아니라 미국제가 되었고,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고 탄식하였습니다. 현대 세속 문화에 거의 사로잡혀 있는 복음주의가 '세속적 휴머니즘'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세상과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혼음하는 교회를 질타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의 분리도 세상과 관계하는 존립 양식 중 하나이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하나의 변혁적 형식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Answer 최태연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세계관 운동에 앞장섰던 조직신학자 송인규 교수는 당시 한국교회의 이원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신앙의 방향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추세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한편에서는 '삼박자 구원'이 서서히 용트림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현실 생활에 집착하는 것을 당연시하도록 부추기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1950~1960년대의 타계주의적 신앙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도피주의적 천국관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신앙 패턴의 공통점은 바로 이원론(dualism)이었다.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든지,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든지 하는 식의 고착화된 생각이었다.” 송인규, 『새로 쓴 기독교 세계관』, 서울: IVP, 2008, 6. 루터교회 출신으로 『완전한 진리』의 저자인 낸시 피어시도 송 교수와 비슷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원론을 수용하여 자신의 신앙을 종교적 영역에 국한시키면서, 세상의 물질주의를 따라가거나 주변의 문화로부터 온갖 세속적 관점을 흡입했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에 빠진 결과 오히려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NEWS

We, Tongho Image Stock, since commence with producing digital image (digital transparency business in 1992, have been building outstanding success in distributing various kind of collections from our various photo sources and in supplying countries through our all partners.

worldview 51

OPEN LECTURE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독교세계관 오픈강좌

한국교회는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가?

Answer 김기현 한국교회의 변혁이란 한마디로 '콘스탄티누스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의는 교회와 세상을 동일시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되는데,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거나 종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콘스탄틴의 길은 강함과 무력을 지향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약함과 무력함을 추구합니다. 4세기 콘스탄틴의 승인 이후, 기독교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박해받는 신앙에서 도리어 박해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에는 반드시 현 체제에 대한 심판과 해체가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콘스탄티누스로 전환한 교회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취로 재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콘스탄틴이 승리한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변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개조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나치게 힘과 권력에 의존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콘스탄틴적 기독교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보어전쟁을 승선했고, 프란시스 웨퍼는 월남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찰스 콜슨은 국방장관이었던 럼즈펠드에게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 당대 문화나 국가에 대한 이러한 충성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혼동하는 모습이 혼합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엄격한 경계선을 그으라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며, 오늘날 상황에도 적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Answer 최태연 김 목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심지어 국가권력 깊숙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얻는 동시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현실을 개혁해 나가는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이른바 '콘스탄티누스의' 위험이 항상 있지만, 크리스천들이 정부와 국회와 군부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조만식 장로처럼 훌륭한 신자이면서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노나이트 윤리학자인 요더의 생각과는 달리, 악을 억제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장치로서 무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은 각자 자신의 죄와 싸우는 동시에 집단, 사회의 죄와도 싸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Answer 김기현 한국교회의 기독교 세계관은 과하게 말하면 신학적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황에 적절한 것인지 반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체제로부터 외형만 분리되었을 뿐 내면적으로는 철저히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와 전혀 다른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신학하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범하는 근본 오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세상과 분리된 적 없고, 오히려 세상과 밀착하여 정치적 떡고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마당에 여전히 참여를 외치고 있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이제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물 나게 세상을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를 외면하고 이원론을 고집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자기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낮은 땅에 사는 나그네, 외국에 거주하는 이방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대조 사회'로서, 바벨론 땅에서 시온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한 때 세상의 지배자였던 교회와 신학이 옛 영화와 언어를 버리고 새로워지지 않는 한, 잡신의 나라, 무신의 나라, 불신의 나라에서 시온의 노래를 어찌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세상과 구별되는 대조성의 부족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정의로운 참여의 부족에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균형과 긴장을 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최태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는 그 양자를 실천하는 길을 찾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세상과 혼음하지 않는' 교회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총체적 주되심의 회복'을 추구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창시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시골 교회의 한 여성 신자 빠져 발투스과 대화 중 칼빈의 개혁신앙을 깨닫고 회심해서 네덜란드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자 애쓰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는 웨슬리의 설교와 회심한 전직 노예선장 존 뉴턴에게 영적 감화를 받고 영국의 노예무역을 종식시켰습니다. 아나뱃티스트 메노 시몬스의 신앙은 브루더호프를 창설한 에버하르트 아놀드를 거쳐 해비타트 운동을 일으킨 밀러드 풀러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 모두 같은 길을 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김기현 목사님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받고 '항상 개혁하는 교회'(ecclesia semper reformanda)의 의미를 더 진지하게 숙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기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 철학과 현대 영미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Ph. D)를 받았다. 현재 작은 신앙공동체인 부산 로고스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로고스서원을 통해 성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와 글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글쓰는 그리스도인(성서유니온선교회),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 등이 있다.

최태연 숭실대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철학적 해석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기독교철학전공 교수로 기독교세계관, 기독교 예술철학, 기독교와 과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적 기독교세계관의 정립과 개혁주의 미학과 과학철학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저서로는 「신앙과 논리」, 「개혁주의와 과학철학」, 「폴 리코르의 변증법적 해석학」 등이 있다.

01 WORLDVIEW LECTURE

창조 타락 구속

강사 신국원(총신대 교수)

일시 11.2(토) 오후 1시-5시

02 WORLDVIEW LECTURE

하나님 나라

강사 이승구(합신대 교수)

일시 11.30(토) 오후 1시-5시

장소 SICA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등록비 1만원

신청 이름/소속 및 직책/ 핸드폰/ 이메일과 해당 신청강좌를 기재하여 대표메일 info@worldview.or.kr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안내메일을 드립니다.

**[강좌] 기독교 세계관 오픈강좌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독교세계관오픈강좌가있습니다. <니고데모의안경>의저자이자본지에서주일학교교사를위한기독교세계관칼럼을연재중인신신국원교수(총신대)와 <기독교세계관이란무엇인가>의저자이승구교수(합신대)께서 준비하시는 기독교세계관 기초강좌로 당일 접수를 받습니다. 미리 신청하셔야 해당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오니 메일로 통해 신청해 주십시오.

일시	강좌명	강사	장소
11/2(토) 오후1시-5시	창조, 타락, 구속	신국원(총신대)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 서울시 양재동 소재)
11/30(토) 오후1시-5시	하나님 나라	이승구(합신대)	

- 등록비 1만원(당일 접수)
- 신청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담당: 홍정석 간사)

**[학회] 제30회 기독교학문학회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 : 기초와 실천"**

기독교학문연구회가 제30회 기독교학문학회를 맞이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기독교학문연구에 관심있는 분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장이자, 기독교학문역사 3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한국 기독교를 전망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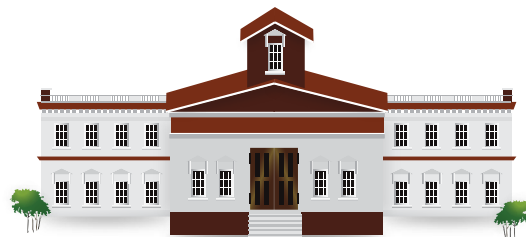
- 일시 2013.11.16.(토)
- 장소 성균관대학교(서울캠퍼스) 호암관, 국제관
- 주제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 기초와 실천
- 주제발표자 신국원(총신대), 송인규(합신대)
- 종합토론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웨슬리 웬트워스(IVP)
- 등록비 2만원
- 문의 (학회) 02-3272-4967 이메일 gihakyun@daum.net (담당: 신호영 간사)

이번 학회에서는 신진 기독교학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미나와 좌담, 질의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지난 20여 년간 수고해주신 중앙대 김승욱 교수님께서 "(신진 기독교학자 세미나) 기독교학자의 길, 가이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실 예정입니다. 인원 확인을 위해 미리 신청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성명/이메일/소속 및 직책/핸드폰을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일시 2013.11.16.(토) 오전 10시-12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서울캠퍼스) 호암관
- 주제 기독교학자의 길, 가이드 ▪ 강사 김승욱(중앙대)
- 문의 (학회) 02-3272-4967 이메일 gihakyun@daum.net

임원 소식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이신 전광식 교수님께서 차기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13년 제3차 실행위원회의 실시

2014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사역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실행위원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3.11.15.(토) 저녁 7시
- 장소 용산 사무국
- 문의 02-754-8004 (담당: 신호영 간사)

「신앙과 학문」 세트 판매 및 4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이 2013년 마지막 호의 투고접수를 받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앙과 학문>을 세트 판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나 기관은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8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문의 02-3272-4967(학회)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어느 소대의 병사 열 사람이 주말에 외출을 했다. 귀대 시간이 지났는데 병사 한 사람이 할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왜 늦었느냐는 소대장의 추궁에 그 병사가 대답했다.

"시간 안에 들어오려고 택시를 잡으려 하는데 도무지 잡을 택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마차 한 대가 지나가기에..."

소대장이 어이가 없어 소리쳤다: "뭐, 요즘 세상에 마차?"

"예. 마차예요. 급한 김에 그 마차를 타고 부대 가까이 삼거리를 지나오는데 그만 마차 바퀴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내려서 뛰었지요.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병사가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왔다.

"야! 너는 왜 늦었어!" 소대장이 고함을 쳤다.

"예. 시간 안에 오려고 택시를 잡으려 하는데 도무지 빈 택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마차 한 대가 지나가기에..." 소대장: "뭐? 또 마차야?" "예. 마차였어요.

그 마차를 타고 오는데 삼거리를 조금 지나자 마차 바퀴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응. 그래서 마차에 내려서 뛰어왔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아홉 번째 병사까지 모두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병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왔다.

이제는 소대장이 대신 대답을 했다.

"늦지 않으려고 택시를 타려 했는데 택시가 없어서 마차를 탔지?"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삼거리 조금 지나자 그만 마차 바퀴 하나가 빠져서 하는 수 없이 뛰어 왔지?"

"삼거리를 조금 지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바퀴가 빠진 것은 내가 탄 마차가 아니고요.

거기에 다다르니까 바퀴 빠진 마차가 아홉 대나 엉켜 붙어 길을 막고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내려서 뛰어왔지요."

단체기합을 줘야 하지! 말아야 하지?



당신의 갈대상자는 무엇입니까?

갈대상자 : 역청과 송진으로 만든 바구니로써, 아기 모세가 강에 띄워졌을 때 갈대상자에 담겨져 그가 살게 됨

한동대 갈대상자 : 1995년 개교 때부터 시작된 후원프로그램으로써, 전 세계 동역자들이 기도와 물질로 한동대학교를 후원함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이채영입니다
이 저금통은 동생과 저가 보온것입니다
언니 오빠들에게 도움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1년 뒤에 한동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채영 올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우리는 한동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동대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갈대상자' 참여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신청 : 054-260-1063 / sarang@handong.edu / <http://sarang.handong.edu>

문자일시 후원 : #89491995 '갈대상자' 입력 후 발송 (1건 10,000원 후원)



- 1)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인 이야기 QR코드
- 2) www.handong.edu 확인